



2016. 6. 20.~26.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학습을 위한

영국 연수 결과보고서

7. 20.(수)

목 차

I	연수 개요	1
	1. 연수 기본계획	1
	2. 연수 대상지 및 일정	3
	3. 연수 대상자 현황	7
II	영국의 사회적경제 현황	9
	1. 영국(런던) 개요	9
	2. 영국 사회적경제 현황 및 지원체계	13
	3. 영국 사회적금융 시스템 현황	30
	4. 영국의 지역주민 주도형 사회적경제 운영 구조	39
III	영국 사회적경제 사례 심층 분석	56
	1. 영국사회적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UK)	56
	2. 커뮤니티주식유닛(Community Share Unit)	66
	3. 해크니협동조합개발(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79
	4. 스프레드 아이(Spread I)	87
IV	정책적 함의	93
	1. 시사점	93
	2. 정책적 제언	94



I. 연수 개요



I. 연수 개요

1. 연수 기본계획

□ 연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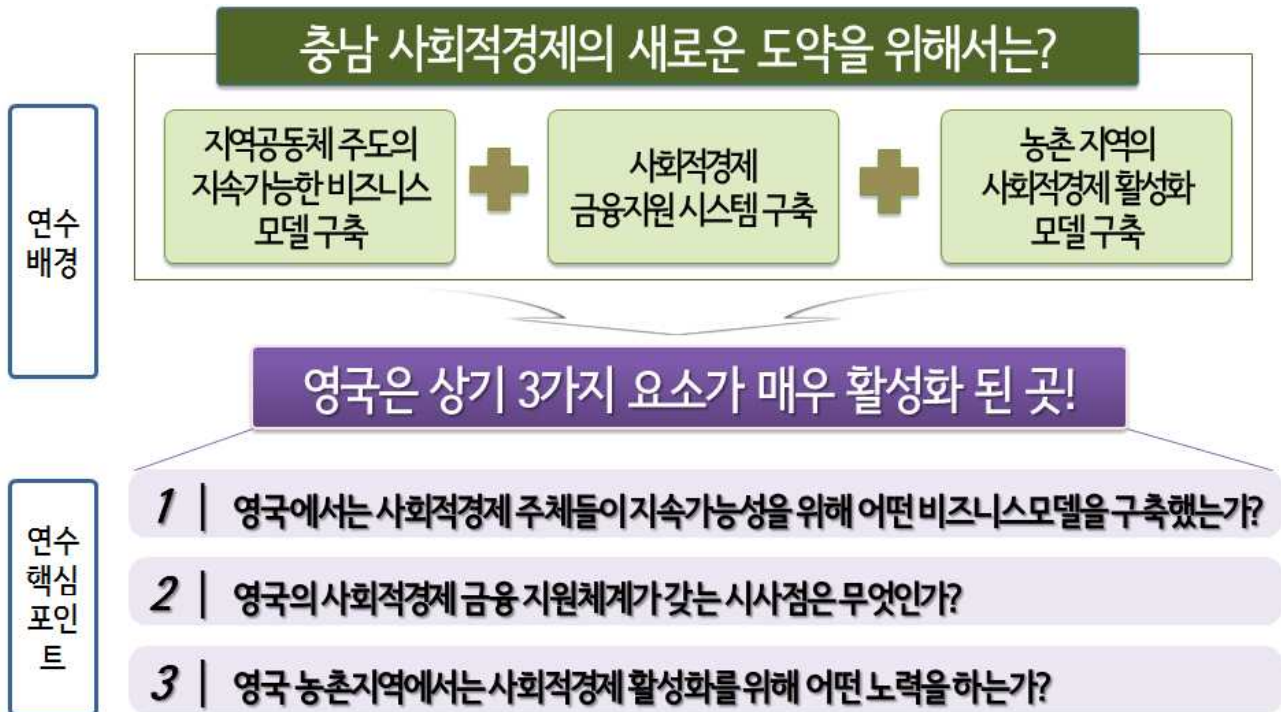
- 일 정 : 2016. 6. 20.(월) ~ 6. 26.(일) / 5박 7일
- 주 관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인 원 : 6명(도 1, 시군 2, 중간지원조직 2, 사회적경제기업 1)
- 방문도시 : 영국(런던, 옥스퍼드, 맨체스터)

□ 연수지역 선정 배경

- 충남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①지역 공동체 주도의 비즈니스모델 발굴, ②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③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긴요
- 영국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된 대표적인 국가로서, 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 사회적금융 지원기구, 농촌형 사회적경제기업 등 상기 3가지 요소가 매우 활성화 된 곳임
-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영국을 연수 대상지로 선정함

□ 연수 내용

-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심층 사례조사
 -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지역 공동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행했던 활동 및 사업 조사
- 선진 사회적금융 지원체계 심층 조사
 - 사회적금융 및 은행의 설립·운영에 대한 사례조사
-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검토
 - 농촌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
 -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이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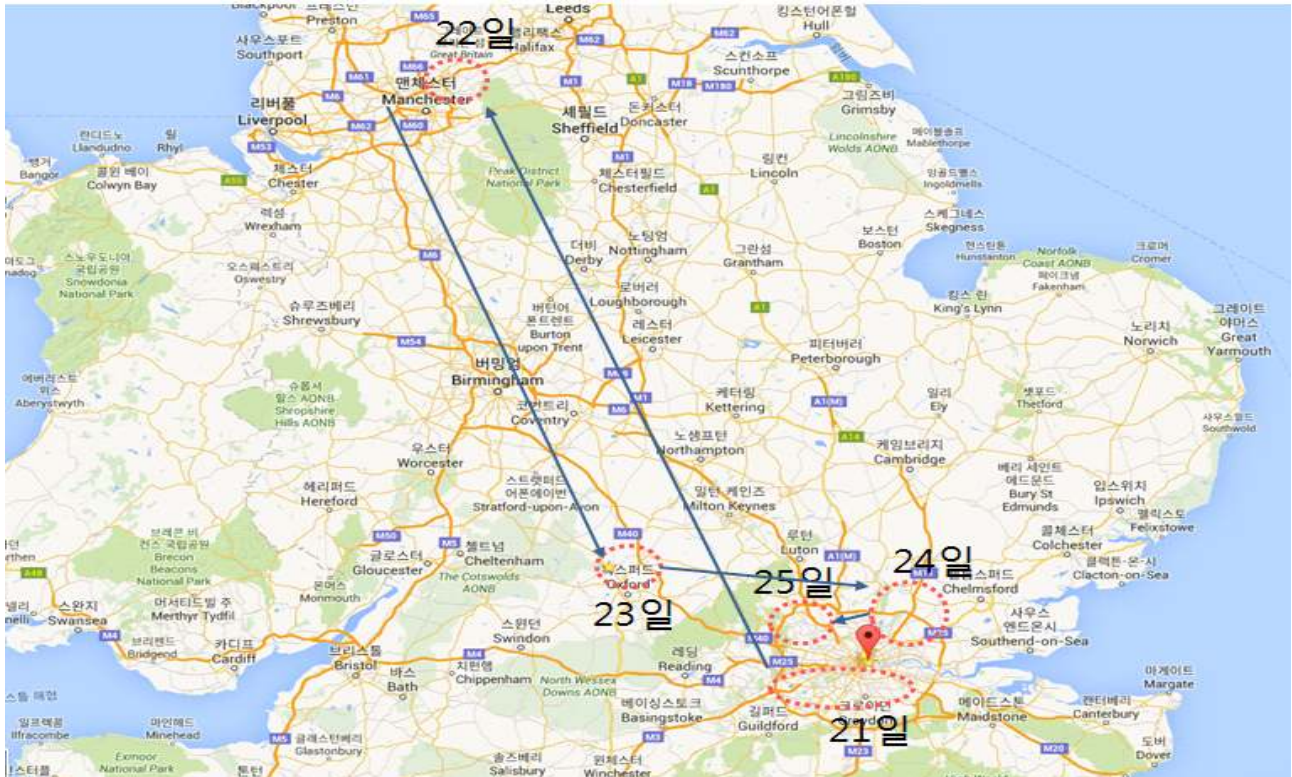


□ 연수단 역할

- 도·시군 : 3명
 - 충남 사회적경제와 영국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충남 도정의 주택,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적용을 위한 방안 모색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명
 - 사회적금융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
 -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료수집
 - 지역공동체활동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모델 정립
-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주체 : 1명
 - 선진 사례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 충남 지역에 도입 가능한 사회적금융, 교육, 공동체 주도 개발 등 운영 모델 검토

2. 연수 대상지 및 일정

□ 총괄지도



□ 대상지 개요

대상기관	주요 역할
①Social Enterprise U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총괄 지원기관 주요 지원사업은 상담 및 컨설팅, 정책기업, 사회적경제 관련 캠페인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②코인스트리트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4년 낙후지역이었던 코인스트리트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재개발계획과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공동체 기업은 런던 중반부 버려진 부지에 협동출자 방식으로 주택, 가게, 갤러리, 식당, 카페, 공원, 스포츠 시설 등을 만들고 보육, 숙박, 가족 지원 등을 수행
③커뮤니티 셰어유닛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자산 소유를 위해 커뮤니티 주식을 발행하고 기금을 모으는 노하우를 지원
④해크니협동조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후지역은 달스턴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크니협동조합개발을 설립하였으며, 자치구의 자산이전을 통해 임대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

□ 세부 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일 정	비고
제1일 06/20 (월)	인 천	10:30	인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 집결	대 중 교 통
			인천 국제공항 출발(KE 907)	
	런 던	13:45	인천국제공항 출발	
		17:25	런던 도착	
		18:30	숙소 도착 : Commodore Hotel(여권 체크인) 50 Lancaster Gate, Hyde Park, London W2 3NA 영국	
		19:00~ 21:00	식사	
제2일 06/21 (화)	런 던	08:00	호텔 조식	대 중 교 통
		09:00~ 12:00	런던 시내 탐방	
		12:00~ 14:00	중식	
		14:00~ 16:00	☞ 공식일정 - SOCIAL ENTERPRISE UK 방문 Add : The Fire Station 39 Tooley Street, London, SE1 2HZ Tel : 44-(0) 203 589 4957 담당자 : James Butler	
		16:00~ 18:00	면담 결과 논의	
		18:00~ 20:00	석식	
		20:00	숙소 : Commodore Hotel 50 Lancaster Gate, Hyde Park, London W2 3NA 영국	
제3일 06/22 (수)	맨 체 스터	08:00	호텔 조식 후	전 용 차 량
		9:00 ~13:30	런던→맨체스터 이동	
		13:30~ 14:30	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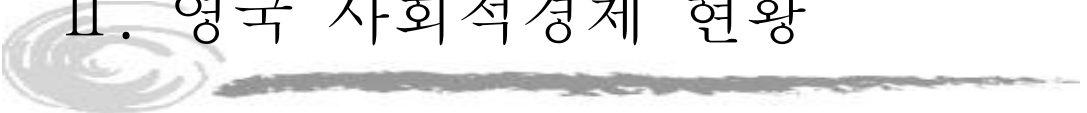
		15:00~ 17:00	<div> ☞ 공식일정 - COMMUNITY SHARE UNIT 방문 http://communityshares.org.uk/ Add : Holyoake House, Hanover Street Manchester M60 0AS Tel :44-(0)161 214 1762 담당자 : Alice Wharton </div>	
		17:00~ 18:00	면담결과 논의	
		18:00~ 20:00	석식	
		20:00	공유경제 숙박시설 체험 - 예약 번호: 3XXNWR - 5 Brighton Grove, Manchester, Manchester M14 5JG, UK - +44 7557 149780	
제3일 06/23 (목)	맨체스터	9:00 ~11:00	맨체스터 현장 답사	전용 차량
		11:00~ 13:00	<div> ★ Spread I 미팅(김정원 박사) - 영국 사회적기업 정책지원체계 면담 및 식사 </div>	
		13:00~ 16:30	맨체스터→옥스포드	
	옥스퍼드	16:30~ 19:00	옥스퍼드 현장 답사	
		19:00~ 20:00	석식	
		20:30	공유경제 숙박시설 체험 - 예약번호: N9S4ZC - 주소: Charlton Road, Brackley, Northamptonshire NN13, UK - +44 7796 487729	
		08:00	호텔 조식	전용 차량

제5일 06/24 (금)	옥스퍼드	09:00~ 12:00	옥스퍼드→런던 이동	
	런던	12:00~ 14:00	(중식) 사회적기업 Water House 식사 - 10 Orsman Road London N1 5QJ 020 7033 0123	
		15:00~ 17:00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5px;"> ☞ 공식일정 - 해크니 협동 조합 방문 -기관명 :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ADD : 62 Beechwood Rd, London E8 3DY -TEL : 44 20 7254 4829 -담당자 : Brian Millington </div>	
		17:00~ 18:00	면담결과 논의	
		18:00~ 20:00	석식	
제6일 06/25 (토)	원저	08:00	호텔 조식 후	전용 차량
		08:00	‘원저’ 향발 (약 30분소요)	
		08:30~ 11:00	★ 원저 지역 사회적경제 현장 답사	
	런던	11:00~ 12:00	원저→런던 귀환(50분)	
		12:00~ 16:00	★ 중식 및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답사 - 브릭스톤 전통시장 방문	
		16:00~ 17:00	런던 국제공항 이동	
		17:00~ 19:35	런던 국제공항 출발(KE 908)	
제07 일 06/26 (일)	인천	14:25	인천 국제공항 도착	

3. 연수 대상자 현황

구분	성명	영문명	소속	직책	역할
1	김은희	KIM EUNHEE	(주)맛있는 국수집	이사	·선진 사례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2	정순영	JEONG SUN YEONG	충남도 경제정책과	6급	·해외연수 사례지역 검토를 통한 충남 도정의 사회적경제 정책 연계방안 검토 ·해외연수 관련 행정업무 제반사항 지원
3	박상덕	PARK SANG-DUK	예산군	6급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정책 연계 방안 검토 ·방문지역 사례 조사
4	오현미	OH HYUNMI	태안군 일자리창출팀	팀장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정책 연계 방안 검토 ·방문지역 사례 조사
5	박춘섭	PARK CHUNSUP	충남사회적경 제지원센터	센터장	·해외연수 총괄 ·해외연수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 검토
6	이홍택	LEE HONGTAEK	충남사회적경 제지원센터	전임 연구원	·해외연수 실무업무 총괄 ·사례조사 지역 관련 사전연구 진행

II. 영국 사회적경제 현황



II. 영국 사회적경제 현황

1. 영국(런던) 개요

□ 국가 개관

- 국 명 :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4개 지역으로 구성
- 국토면적: 231,752km²(한국의 약 2.4배)
- 인구 : 6,374만 명(2014년 기준)
- 언 어 : 영어
- 통화 : 파운드 스텔링(Pound sterling, £)
 - 환율 : 1파운드 = 1,689.9(2016. 5. 10 기준)
- GDP
 - GDP 27,610억 달러(2016년 기준, 세계 5위)
 - 1인당 GDP 42,106 달러(2016년 기준, 세계 17위)
- 수도 : 런던(London, 약 800만 명)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총리 : 데이비드 캐머런
- 주요 정당
 - 영국보수당 : 영국의 여당으로 대처리즘에 의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 영국노동당 : 제2정당이며, 주요산업의 국유화,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표방

□ 정권별 주요 시책

● 대처정권(1979년 5월~1990년 11월) - 보수당

- 1960년에서 1970년대의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복지 정책과 평등주의가 일반화되면서 저비용, 고비용이 확대되는 이른바 ‘영국병’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경제가 급락하고 있었음
- 대처는 1979년 5월 수상에 당선된 이후 3선의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영국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경제적으로는 과감한 시장주의 정책성향(신자유주의)을 보여왔음
- 대처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스, 항공, 수도, 전화 등 국유화 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경쟁원리 도입, 소득세 및 법인세의 대폭 감세 등을 추진
- 1980년대 중반부터 대처의 개혁성공으로 영국은 영국병이 치유되면서 경제적 불황에서 탈피하기 시작

● 메이저정권(1990년 11월~1997년 5월) - 보수당

- 존 메이저는 대처의 후계자로 재선을 통해 1997년까지 정권을 유지
- 메이저는 유럽 정책, 인두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을 대처로부터 계승

● 블레어정권(1997년 11월~2007년 6월) - 노동당

- 1997년 5월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의 역사적 대승을 이끌며 18년 만에 정권 획득에 성공
- 대처이즘에 대항하여 노동당의 새로운 노선인 ‘제3의 길’을 주창, 제3의 길이란 종래의 대립적 사조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극복하여 양자의 이점을 조합하면서 초월한 이념이자 정책으로 중도좌파의 노선임
- 블레어는 제3의 길을 바탕으로 시장중시형 행·재정개혁 흐름을 지속하면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구상하는 정부근대화를 정책의 축으로 설정
- 블레어는 안정적인 정권운영으로 3기 연속으로 집권(1997, 2001, 2005)에 성공했으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비판, 지방의회 선거의 패배 등으로 사임

● 브라운정권(2007년 6월~2010년 5월) - 노동당

- 블레어정권에서 재무장관으로 활약한 당내 실력자 고든 브라운이 블레어총리의 후임으로 2007년 6월에 수상으로 취임
- 브라운총리는 최우선과제로 주택정책에 집중했으며, 교육, 국민의료보건서비스(NHS), 안심·안전정책 등을 도입하여 초기 높은 지지율을 확보
- 그러나, 노턴록 은행의 경영위기, 08년 금융위기 등에 따라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2010년 총선거에서 정권을 내어주게 됨

● 캐머론정권(2010년 5월~현재) -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권

- 온정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데이비드 캐머론의 보수당은 2010년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캐머론정권이 탄생함
- 캐머론정권은 취임 초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했는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국가의 정보공개범위 확대 등을 추진
- 특히, Big society의 실현을 위해 지역주의법안(localism bill)을 제정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
-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단순 민간위탁 방식의 협력에서 벗어나 상호 수평적 관계의 협약(compact) 시스템을 도입·운영

□ 지방행정체제

- 영국의 지방정부는 광역 지방정부(County), 기초 자치단체(Borough, District), 통합단체(Unitary Authority)로 구성
 - 자치단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공범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준지방정부로는 파리쉬(parish), 타운(Town), 커뮤니티(Community)가 존재
- 광역 지방정부(County)는 런던광역시(Great London Authority)와 잉글랜드의 비도시권 지역의 인구 50~150만 정도의 카운티(County)가 해당
 - 광역 지방정부는 교육, 사회서비스, 교통, 소방, 지역전략계획, 소비자 보호, 쓰레기 처리, 환경보전, 도서관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

● 기초 자치단체(Borough, District)

- 런던광역시 내에는 런던구(London Borough)와 런던시티 도시법인(City of London)을 포함하여 33개가 설치되어 있음
- 디스트릭트(District)는 각 카운티 내에 인구 약 10만명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계획, 주거, 지방도로, 건축규제, 환경보전, 쓰레기 수거 등의 기능을 수행

● 통합단체(Unitary Authority)

- 통합단체는 자치단체간 통합(광역-기초 또는 기초-기초간)을 통해 권역 내 기초 자치단체가 광역기능까지 흡수하여 통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광역 시·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등
	시·군·구	천안시, 금산군, 강남구 등
	읍·면·동	동남구, 장군면, 유구읍 등
광역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영국	
중앙정부	
카운티(County)	런던광역시, 캠브리지 카운티
기초자치단체 (Borough, District)	런던구(Borough), 레이크 디스트릭트
parish, town, community	
통합단체(Unitary Authority)	

<표> 우리나라와 영국의 지방행정체계

2. 영국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지원체계

1) 영국의 사회적경제 동향

□ 영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은 비즈니스 성공을 통한 이윤의 지역복지자원화에 기업 운영의 초점을 둠

- 영국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과 우애조합 (Friendly society) 운동으로부터 시작
 - 산업자본주의 전성기였던 18-19세기 도시근로자의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작된 민간차원의 운동은 현재의 영국 사회적경제의 특징
 - 영국 사회적경제의 공식명칭은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VCS)로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조직이 중심이 된 지역재생을 의미

<인보관 운동>

- 시대적 배경 : 18세기부터 진행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였으나, 외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탄, 급격한 대도시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열악한 근로환경, 식민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동런던 지역의 빈민窟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 운동의 주체 : 1867년 에디워드 데니슨(Edward Denison) 목사가 런던의 한 빈민지역에서 교육과 상담을 시작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이 빈민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을 확대하였다.
- 운동의 내용 : 인보관 활동가들은 공립학교에서 탁아사업, 급식, 심신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역마다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법규를 개선하고 도시 계획을 통해 밀집주거지역 현상을 해소하고 공립학교를 지역사회센터로 활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지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였다.

<우애조합 >

- 배경 : 17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공장 근로자수의 많아지기 시작하자 도시로 공급되는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 조합의 주체 : 근로자들은 생필품 품귀현상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노동자조합을 결성하여 상점과 고용주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후 조합원의 조합비 각출을 통한 조합 상점과 유통망을 스스로 구축·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 운동의 내용 : 우애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로치데일(Rochdale) 협동조합이다. 이들은 2펜스씩 각출하여 협동조합 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제분 협동조합을 세워 직접적인 생필품을 생산·공급하였다. 또한 소비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소비를 하도록 하였다.

자료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집.

□ 영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는 자선단체, 공동체이익회사가 대표적

- 영국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자선단체, 산업공제조합, 공동체이익기업이 대표적임

- 등록자선단체는 회원 및 지역사회에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국에서 공동체 기반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
 - 등록된 자선단체는 유한책임회사, 비법인 단체, 비법인신탁 중 하나의 유형을 택하게 되고, 산업공제조합의 형태를 취할 경우 자선활동 관련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 법적으로 자선단체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식이나 벤처캐피탈로부터 수입을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산업공제조합이 되어서 자선단체의 활동규제에서 벗어나거나 자선단체 등록과 회사법인 등록을 이중으로 하는 형태를 취해야함
- 산업공제조합은 법적으로는 노동이나 상거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합을 의미하며, 반드시 공동체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산업공제조합은 선의의 협동조합이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조합이어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협동조합, 소매조합, 도매 및 생산 조합, 농업협동조합, 공제회, 주택협동조합 등의 형태 중 하나로 유한책임의 법인격을 취득해야 함
- 마지막으로 영국의 사회적기업인 공동체기업은 독립적인 법적 형태를 취함
 - CIC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조직 형태로, 사적 자산과 영업 양도로 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회사 이윤과 자산을 공동체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
 - CIC는 자선단체와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선단체에서 불가능했던 주식발행을 통한 투자유치가 가능함
 - 또한, 사외이사 구성이나 민주적 지배구조의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선단체 보다 더 유연한 관리 방식을 갖고 있음

〈영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

- 자선단체(Charities)
- 산업공제조합(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 비법인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
- 신탁증서에 의해 운영되는 비법인 신탁(Unincorporated Trust, Governed by a Trust Deed)
- 회사(Company):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와 공기업 포함)
- 합자회사(Limited Company Partnership)

□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 용어의 남용을 막고자 2010년 ‘사회적기업 마크’ 인증을 추진

-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 용어를 남용 및 오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사회적기업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를 추진
-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 독립적인 비즈니스일 것, 최소한 수입의 50% 이상은 상거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며, 수익의 50% 이상은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목표를 위해 쓰여하는 등의 조건 충족이 필요

영국의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 · 독립적인 비즈니스일 것 · 최소한 수입의 50% 이상은 상거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질 것 · 최소한 수익의 50% 이상은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목표를 위해 쓰여야 함 ·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보고할 수 있어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영업활동의 수입은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2) 영국의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 영국 정부는 재정압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1990년 지방정부주도의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사회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 협동조합, 공동체이익회사 등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약 283,500개(2013년 기준)가 존재하며, 이중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약 70,000개로 파악됨
 -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비 5.9%에 해당하며,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5.7%에 해당

<표> 영국 사회적기업 규모

구분	일반 중소기업(개)	사회적기업(개)	비중(%)
전체(고용 무 포함)	4,787,650	283,500	5.9
전체(고용 유)	1,230,395	70,000	5.7
종사자 무	3,557,255	213,400	6.0
극소기업(1~9명)	1,022,695	56,200	5.5
소기업(10~49명)	177,950	11,200	6.3
중기업(50~249명)	29,750	2,600	8.7

출처: BMG Research(2013.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Cabinet office.

-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은 500억 파운드(약 84조원)로 기업 당 평균 20.6만 파운드(약 3억 3,846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40.5만 파운드의 50.8%에 해당하며, 임금 근로자를 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연평균 매출액이 66.5 파운드로 동일 기준의 중소기업(연 평균 매출액 103.3파운드) 대비 64% 정도에 해당

<표> 영국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규모

구분	사회적기업(개)	총 매출액(백만 파운드)	평균 매출액(파운드)
전체(고용 무 포함)	283,500	54,900	206,800
전체(고용 유)	70,000	46,600	665,200
종사자 무	213,400	8,300	3,900
극소기업(1~9명)	56,200	13,900	247,000
소기업(10~49명)	11,200	14,200	1,264,000
중기업(50~249명)	2,600	18,500	7,160,400

출처: BMG Research(2013.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Cabinet office.

- 사업으로 인한 이익발생률은 62.8%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영국 사회적기업의 이윤 발생률

구분	일반중소기업(n=4,768)	사회적기업(n=344)
이익 발생 여부	71.8%	62.8%

출처: BMG Research(2013.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Cabinet office.

- 영국의 사회적기업 업종 분야의 경우, 식품, 사업지원 서비스, 건강, 도소매업, 문화 및 레저 부분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식품과 건강, 문화레저 산업 에서는 그 비중이 일반 중소기업 대비 높음

<표> 영국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

구분	일반중소기업(n=4,768)	사회적기업(n=344)
1차산업	4.7	3.5
제조업	7.2	2.9
건설업	12.3	4.8
도소매업	19.4	12.0
운송업	3.0	2.8
식품/숙박업	9.8	28.6
정보통신	5.0	0.1
사업지원서비스	17.6	13.2
행정서비스	7.7	3.0
교육	1.4	2.0
건강	4.7	13.1
문화/레저	1.9	6.4
기타서비스	5.4	7.7

출처: BMG Research(2013.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Cabinet office.

- 또한 법인격에서는 개인유한 책임회사가 가장 많지만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보증책임회사와 공동체 이익회사가 많은데 이는 공동체이익회사법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짐

<표> 영국 사회적기업의 법인격 형태

(단위: %)

구분	일반중소기업(n=4,768)	사회적기업(n=344)
개인유한책임회사	52.3	30.8
개인기업	27.0	28.8
합자회사	11.9	13.3
보증책임회사	1.9	7.8
유한책임회사	1.6	0.01
주식회사	1.5	1.6
공제회/학회	0.6	3.2
공동체이익회사	0.4	4.9

출처: BMG Research(2013.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Cabinet office.

- 영국의 사회적기업들의 재무 상황은 우선 지난 2012년 동안 자금조달을 추진한 경우는 약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시도율 24.0%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임
- 영국의 사회적기업들이 자본조달을 시도한 이유로는 운영자금 조달이 5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본설비투자(22.3%) 순이었음

<표> 영국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이유

(단위: %)

구분	일반중소기업(n=1,409)	사회적기업(n=108)
운영자금	55.7	52.6
자본설비 투자	22.6	22.3
부동산 구매	8.8	6.5
빌딩 개조	7.6	12.3
연구 개발	4.6	9.1

출처: BMG Research(2013.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Cabinet office.

- 그리고 자금조달수단은 은행대출이 4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은행 당좌어음(26.2%)이었음. 다만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정부 등으로 부터의 보조금이 22.5%로 많았음

- 따라서, 영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매출을 기반으로 한 이익 발생으로 재무건전성이 일반 중소기업 대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표> 영국 사회적기업의 자금유통 수단

(단위: %)

구분	일반중소기업(n=4,768)	사회적기업(n=344)
은행대출	48.6	42.6
은행 당좌어음	34.6	26.2
임대/할부구매	8.5	10.7
보조금	6.6	22.5
부동산대출	5.7	1.5
주택담보대출	3.2	1.1
신용카드 자금	2.7	6.0

출처: BMG Research(2013.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Cabinet office.

- 한편, 영국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적기업 이외에 고려해야 할 기관이 있다면 협동조합이 대표적임
 - 영국이 근대 협동조합의 발생지이며, 정부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민간에게 공식적으로 위탁운영되기 전까지 제3섹터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담당했던 조직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임
- 2011년 기준, 협동조합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5,933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08년 대비 조합 수는 약 1,000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조합원 수에 있어서도 약 22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매출액은 356억 파운드(약 60조원)로 2012년 사회적기업 매출액 549억 파운드 대비 64.8%를 차지하고 있음

<표> 영국 협동조합 규모

(단위: 개, 천명, 억 파운드, %)

구분	조합수	조합원 수	매출액
2011	5,933	13,500	356
2010	5,450	12,800	351
2009	4,992	12,900	326
2008	4,820	11,300	298

출처: BMG Research(2013.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Cabinet office.

3) 영국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① 정책 요약

□ 영국 정부는 영리기반의 기업모델로 사회적기업을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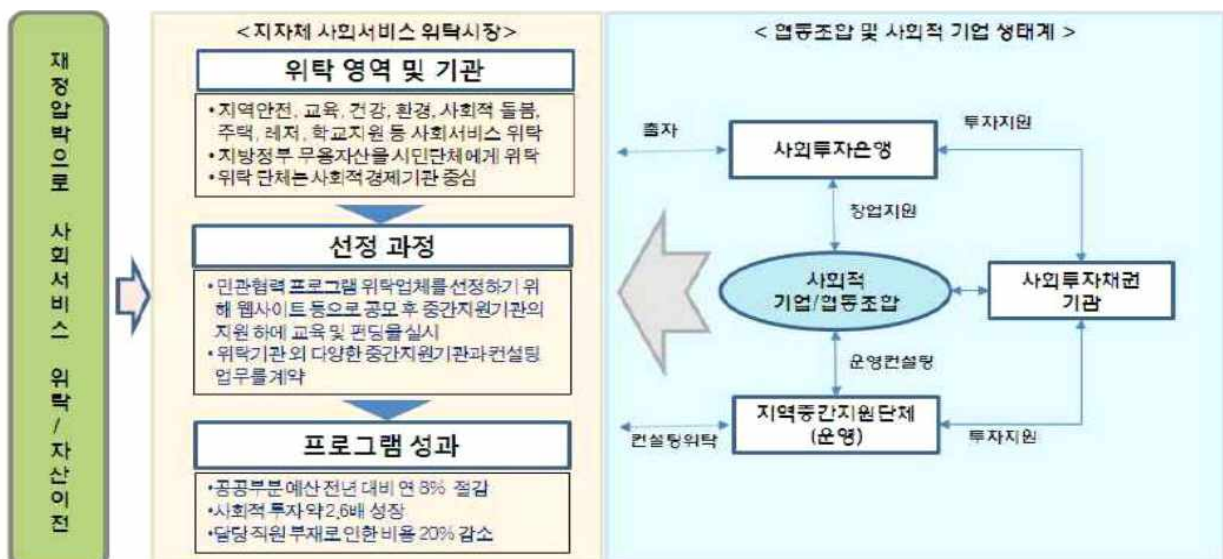
- 1970년대 이전까지 영국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되는 제3섹터 영역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은 1844년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시민조직인 근대적 협동조합이 처음 탄생한 곳이며,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소규모 공동체 나 자원봉사 조직으로 지역기반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
- 그러던 중 1965년 산업공제조합법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Act)을 통해 정부는 협동조합 등 제 3섹터에게 유한회사로써 법인격을 부여해 주고, 부동산 소유허용과 자선 단체로 전환 시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감면해 줌
- 이후 1970년대 도입된 지방자치제의 사회서비스 민간이전으로 제3섹터가 공공 부문 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등장하게 됨
 - 이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추진 해왔던 제3섹터들의 사회서비스를 공식화함과 동시에 기업으로서 생존해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장을 부여해준 것임
- 특히 1990년대 도입된 사회서비스 위탁기관에 대한 경쟁 입찰방식은 제3 섹터 기반의 사회적기업들이 시장경쟁체제에 진입하여 기업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줌
- 그리고 2005년에 제정된 공동체이익회사법은 비영리기관들에게 상법상 지위를 부여한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시킴
- 이 과정에서 비영리기관의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발행을 허용하여 일정부문 경영자에게 수익배분이 가능하도록 함
 - 이는 지역사회개발 투자유치를 위해 비영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 유한 회사의 한계를 제거시키는 정책이었음
 - 보증유한회사의 경우, 조직 내규 상, 이윤을 관리자의 급료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임(한상진, 황미영. 2010)

□ 사회적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

- 첫째, 영국정부는 사회서비스기관으로써 육성을 위해 정부주도의 중간지원기관을 육성
 - 1976년 지방정부는 근로자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개발기관 (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을 설립
 - 초기 80여 개에 달했던 CDA는 지자체의 청년, 자영업, 취약계층의 창업 무료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재정지출 감소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
 -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해 경영컨설팅, 교육, 창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300개의 사회적기업형태의 중간지원기관을 육성
- 둘째, 제3섹터 기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독자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임
 - 사회적기업들은 특성상 영리추구목적이 낮아 일반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
 - 영국 정부는 공공금융시스템으로써 신탁과 지역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설립자금을 융통시켜주고,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Phoenix Fund(3천만 파운드), Future Builders Fund(2억 1500만 파운드), Risk Capital Fund(1 천만 파운드) 등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한다.
 - 그리고 영국정부는 Big Society Fund를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에게 자금을 융통시켜주는 사회적 금융기관들의 공공 협동조합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수행
 - 이외에 영국 정부는 국립 복권판매기금 등 공공기금의 이자를 민간기금화 (Big Issue Invest)하여 사회목적투자기금으로 활용
- 셋째, 표준화된 사회서비스의 위탁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을 위한 시장을 부여해 주었다는 점임
 - 2009년부터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는 방식의 지방정부의 자산이전 모델 사업을 시작

- 각 지방정부에는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사용 하지 하는 공공건물이나 토지 등의 자산이 존재
- 이와 같은 자산을 사회서비스 개발을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장기 임대하여 준 것임
- 따라서 2009년 10개에 불과하였던 자산이전 모델 프로그램은 3년이 경과한 2013년에 120개로 확대되었다(시민사회청, 2013)

- 이를 위해 정부는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기관인 사회투자은행(Social Investment Bank), 자산이전 전문 지원기관 Locality, 지역사회 창업컨설팅 지원 기관(Community Link) 등 민간 중간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자료: 이철선(2013).

<그림> 영국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생태계 조성

〈표〉 영국의 사회적경제 정책 개관

구분	주요내용
육성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서비스 위탁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사회적기업 육성형 - 상법상 기업육성 모델(지역개발 중심, 관리자 이익제공)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금융, 중간지원체제 등 생태계 육성 · 지역 NPO에게 상업상 지위부여, 주식발행을 통해 보증유한회사의 한계극복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70,000여개('10) · 전체 고용의 5%, GDP 대비 2%, 매출액 약 61조원, 종사자수 72만 명 - (공동체이익회사(CIC)) 2,781개('08)
법/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격) 산업공제조합(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Act, '65년) · 유한회사로써 법인격 부여 후 부동산 소유 허용,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허용 · 소비자협동조합, 공동주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에게 법인격 부여 · 자선단체로 전환시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감면 - (성공적 사회적기업을 위한 전략, '02) - (공동이익회사법, 2005)에 의해 NPO에게 상업상 지위 부여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NPO에게 주식발행이 허용되어 일정부문 경영자에게 수익배분이 가능 - 2010년 보수당 정부가 Big Society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서비스 위탁에 대한 경쟁 입찰이 가속화 ·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민관협력 프로그램 확대 · 지방정부의 공휴자산 이전을 통한 사업 부여
지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세금우대 정책 추진 · (세금우대) 회원출자에 대한 세금혜택, 회사지분을 종업원에게 양도시 세금 면제 · (재정지원) 고용지원금, 자본지원금, 회계원조지원금, 기업대부기금 - (금융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신탁 등 대상의 다양한 기금을 조성 · (사회적기업) Phoenix Fund(3천만 파운드), Future Builders Fund(2억 1500만 파운드), Risk Capital Fund(1천만 파운드) 등 · (신탁/CDFI) 사회적기업 대상 금융지원기관인 신탁과 지역개발기관이 자금유통 · (공공 협동조합은행) 정부는 Big Society Fund를 조성 후 사회적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유통하고 사회적 금융 기관의 은행역할을 담당 · (민간기금) 국립 복권판매기금 등 공공기금의 이자를 민간기금화(Big Issue Invest)하여 사회목적투자기금으로 활용

자료: 한국법제연구원(2012),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해외법제조사 및 분석연구, 조상미 등(2011)

② 시기별 정책 현황

□ 신노동당 정부(1997~2010)의 지원정책

- 본격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은 2001년 통상산업부 내에 사회적기업실을 출범하면서 시작
 - 초창기 사회적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부로 시작
- 2002년에는 사회적기업 영역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
 - 2006년에는 사회적기업의 확장을 목표로 함



- 신노동당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확장과 육성을 위해 공동체이익회사법, 자선주식기관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 구축

공동체이익회사법(Community Interest Company Act)

-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과거에는 별도 규정없이 회사법(Companies Act 1985)의 적용을 받던 것이, 2005년 회사법의 개정과 함께 공동체이익회사에 관한 단독규정이 생기며 처음으로 그 개념이 법적으로 규정
- 공동체이익회사는 '공동체이익심사(community interest test)'를 통과해야 하며, 그 자산과 수익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 동결(asset lock)'을 약속해야 함

자선주식기관법(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 Act)

- 2011년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을 개정하여 자선주식기관(CIO)이라는 새로운 법인형태를 정의
- CIO는 비영리목적을 지닌 상업 활동이 허용된 자선단체로 정의

- 신노동당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확장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사회적기업 환경 조성 : 법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동조달 참여를 위한 절차 개선
 - 사회적기업 문화 활성화 : 사회적기업 DB 및 연구 사업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날 등 이벤트 개최 추진
 - 이외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사회적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세제혜택 등 추진

구성	역할
사회적기업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규제 완화 ·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절차 개선
사회적기업 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DB 구축, 사회적기업 매핑 연구 등 · 사회적기업 홍보대사 선정 및 홍보 활동 · 사회적기업의 날 등 이벤트 개최
사회적기업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정보제공 : 비즈니스링크 활용 · 사회적기업 컨설턴트 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훈련 등
사회적기업 자금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금융 지원 : 지역사회금융기관(CDFI) 활성화 지원 · 사회적 투자 세제혜택 : 투자시 소득세 20% 감면 등

□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2010~)의 지원정책

- 2010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 라는 새 정책 비전을 발표
 - ‘빅소사이어티’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책임을 지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회를 의미

빅 소사이어티

✓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

✓ 공공서비스를 비영리 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이양

✓ 개인과 시민이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전략의 변화!

이미 기반을 갖춘 사회적기업 영역이 제시하는 성장 전략에 맞추어 지원하는 것에 초점

-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속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 지역주권
법 등의 제도 개선

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Public Service Act)

- 2013년 발표된 법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외주 사업이나 물품 조달에서 사회적가치와 환경 가치를 고
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임
- 이 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공공기관의 외주 사업 수행과 물품 조달 기관으로 선택될 수 있는 입지 강화

지역주권법(Localism Act)

-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은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나아가 지역사회 주체들
에게 이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특히, 지역사회의 권한이라는 조항을 통해 공공기관 소유의 공유자산을 매입하는데 우선권을 부여

-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시민사회와 중앙정부간 협력관계 개선, 자금 지원에 초점
- 공공서비스 제공 지원 :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
해 성과중심 계약금 지원, 공공서비스 입찰시 컨소시엄 지원 등의 정책 추진

- 시민사회와 중앙정부간 협력관계 : 영국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혁신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콤팩트(compact) 프로그램을 통한 대협약 체결
- 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사회목적투자인 빅소사이어티캐피탈, 사회적투자세금공제, 사회적인큐베이터 기금 등 다양한 기금체계 운용

구성	역할
공공서비스 제공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중심계약금 지원: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기업이 제공하고,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는 제도 · 사회적기업 및 시민사회의 공공사업 입찰시 컨소시엄 지원: 파트너십 파인더 개발 운영 · 조달아카데미 : 공공조달에 대한 공무원, 실무자 교육
시민사회와 중앙정부간 협력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콤팩트 프로그램 활용: 정부와 시민사회간 대협약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소사이어티 캐피탈 : 사회적투자 지원 · 사회적투자세금공제, 사회적인큐베이터 기금 등

③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현황

● 공공서비스 조달 및 입찰 지원

- 지자체별로 공공 조달과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강구
- 정부의 적극적 개선 노력에도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외주업체로 선정하는데 어려움 존재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다수의 입찰과 계약에 요구되는 문서와 과정의 표준화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의 명확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지원

✓ 입찰 기회의 연간 기획표를 공표하여 입찰 준비 시간을 부여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입찰과 조달의 과정을 교육

✓ 민간기업과 사회적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

●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 지원

-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기회가 있더라도 규모가 작은 사회적기업은 입찰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소규모 사회적기업들이 대규모 사회적기업이나 민간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컨소시엄
구성
지원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법적 조언 등 전문 컨설팅 제공

✓ 사업 공모 이전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파트너 파악 지원

✓ 공공서비스 입찰 모델을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기업과 협업 지원

●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 및 토지 등 자산이전 추진

- 지역주권법에서는 지자체 소유로 활용성이 저조한 지역내 자산을 지역단체나 지역기업에 이전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
- 이에 지자체들은 무상 자산 이전으로 유휴지나 유휴 공간을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크게 성장한 사례를 볼 수 있음

자산이전
지원

✓ 지역내 지자체 소유의 유휴자산을 조사하고 목록 공개

✓ 사회적기업과 지역기업이 자산 관리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 교육

✓ 지역내 유휴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내 소모임 지원

3. 영국의 사회적금융 시스템 현황

1) 사회적 금융에 대한 기초적 이해

-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
 -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가 직 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금융방식을 말함
-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①마이크로파이낸스, ②사회목적 투자, ③공동체금융, ④협동금융이 대표적임

□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

-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란 무담보 신용대출 방식으로 소규모의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교육훈련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소액 대출(Microcredit)임
 - 일반 저축계좌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고 최소 잔액 요구조건이 아예 없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해도 되도록 설계된 소액저축(Micro-saving), 빈곤계층의 납입능력을 감안해 적은 보험료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액보험(Micro-insurance) 등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말함

□ 사회목적투자(Impact Investing)

- 사회목적투자(Impact Investing)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서도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기법을 말하며, 사회문제 해결이나 피해의 축소를 넘어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임팩트Impact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적 모험자본(SVC) 등 사회투자 중개기관(SIFIs)이 주체가 되어 사회혁신기업이나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대한 투·융자 방식으로 자본을 투입하며, 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기부 및 후원과 달리, 자금 회수 및 이익(Financial Return)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 공동체 금융(Community Finance)

- 공동체금융(Community Finance)이란,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지역공동체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임
 - 공동체 금융기관이란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지역공동체 개발 및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 다수의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펼치는 지역 재단, 낙후지역에 머물면서 공동체 주민과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하는 CDFIs가 대표적인 기관임

□ 협동금융(Cooperation Finance)

- 협동금융(Cooperation Finance)이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본(Capita)을 모아 공동체 이익과 발전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말함
 - 여기서 공동체Community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을 들 수 있음
 - 그 외 계(契)모임, 공제회(控除會)등 혹 시 모를 미래의 위험을 집단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상호부조(Mutual Aid)조직도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에 포함됨.
 - 각각의 독립적인 주체들이 모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평등한 조건 속에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연대금융(Solidarity Finance)이라고 부르기도 함

□ 사회적 금융영역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공동체 금융임

- 지역공동체기금(Community Fund) 혹은 지역공동체재단은 특정한 곳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한 자금을 모아놓은 집합체라 할 수 있음

- 주로 기부나 후원을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이라기보다 자선단체에 가까우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금원(Resource)이 존재해야만 유지될 수 있음
-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인 크라우드 펀딩기법을 활용해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지역재생을 위한 자금모집을 추진하는 사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2) 영국의 공동체금융 현황

①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 CDFI 개요

- 영국 CDFI는 주로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소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및 금융 소외계층에게 자금을 투·융자해주는 일을 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임
- 2000년대 초반, 미국 CDFI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지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영국 전역에 약 70개의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음
- 영국에서 지역개발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주류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체계에 따른 서민들의 금융배제의 심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의식 확산에 따른 것임
 - 영국인의 신탁 가입률은 약 2% 수준으로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이나 지역금융 기반도 매우 허약해 지역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최근 영국 정부의 지역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CDFI조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 정부 및 유럽연합(EU) 차원의 금융 지원 확대, 씨티(The City)로 대표되는 대형 금융기관들과의 협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신탁 등 지역기반의 금융 기반이 약한 영국의 경우, CDFI가 사실상 서민 금융 기관 및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CDFI의 운영 현황

- CDFI는 2013년 기준, 영국 내 53개가 운영
 - 2013년 기준 5만700건의 대출 집행(총 1억 2,300만 파운드)
 - 1만7천개의 일자리 창출 및 보호 효과 달성
- 영국 CDFIs의 사업영역은 3가지로 구분됨
 - 1)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 점수가 나빠서 주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기관
 - 2)비영리 자선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게 자금을 융자해주는 기관
 - 3)신용상태가 나쁜 개인들을 상대로 소액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관 등임
- CDFA가 산하 CDFI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CDFI 숫자는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융자 금액(2011년 회계 기준)은 총 7억 1,400만 파운드로 2006년 대비 3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금융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CDFIs 대상자는 개인에서 점차 사업체로 확장하고 있음
 - SUL(Start Up Loans), NEA(New Enterprise Allowance)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체 설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 사업체 대출의 경우 대부분 신생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등 10인 이하의직원 으로 구성된 소기업들(Micro-Enterprise)이며,
 - 이 기업들은 대부분 1)융자규모가 작아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비용 대비 생산성이 낮다는점, 2)담보물건이 없다는 점, 3)신용점수나 사업경력 이 부족 하다는 점, 4)열악한 곳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상업은행들로 부터 거절당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음

<표> CDFI의 이용 대상자

	비즈니스	개인	소셜벤처	주택 소유자
규 모	약 3/4	약 1/3	약 1/5	5%
대 상	개인사업자, 중소규모 사업체	소외계층	사회적기업, 자선단체 등 NGO섹터	현금이 없는 주택소유자

● CDFI의 대출 현황

- 대출수요 : 2013년 기준, 5만 7백건 집행(6만4천여 건 접수대비 87% 기금 집행)
- 대출집행: 2013년 실행 된 RGF(Regional Growth Fund 4), SUL 프로그램으로 CDFIs 대출 급격히 증가
- CDFIs는 전체 대출의 99.8%인 5만 6백건의 대출을 지역사회, 소외계층 중심으로 집행하여 8천8백만 파운드(약 1570억)의 가치 창출

<표> CDFI의 대출 현황

	비즈니스	개인	소셜벤처	주택 소유자
대출금액	5,200만 파운드 (약 930억) (전체 대비 42%)	1,900만 파운드 (약 340억)	4,800만 파운드 (약 854억) (전체 대비 39%)	400만 파운드 (약 71억)
평균 대출금액	평균 약 5,500파운드 ⁵⁾ (약 980만원)	평균 약 478파운드 (약 85만원)	평균 약 15만 7천 파운드 (약 2억 8천만 원)	평균 약 7,700파운드 (약 1,350만원)

※ 80% 이상 개인대출 형태로 자금 집행

□ CDFI의 수입 구조

- 운영수익, 보조금, 투자수익으로 운영비 충당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CDFIs는 외부 보조금, 기부금, 투자로 편당
- 690만 파운드(약 107억)를 보조금과 투자수익으로 확보(보조금으로 약 558만 파운드 조달)
- 2,700만 파운드(약 482억)가 운영으로 발생. 이자수익 1,500만 파운드(약 267억), 대출 서비스 관리로 5백만 파운드(약 90억) 등 수익의 74%가 대출로부터 발생
- 2012년(3,100만 파운드) 대비 운영 수익은 감소했으나 대출활동을 통한 수익 증가

〈CDFI 운영 사례: Unity Trust Bank〉

- Unity Trust Bank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조직들에게 CDFIs 외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손꼽히는 CDFIs 도매금융 담당 금융기관
- Unity는 지난 3년간 1억 파운드가 넘는 대출을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진행. 2013년 Unity는 16개의 CDFIs에 780만 파운드를 대출했으며, 추가적으로 CDFA REF 매칭펀드 프로그램에 1,090만 파운드를 레버레징함
- Unity에서 운영하고 있는 CDFIs의 한 종류인 BCRS 대출 사례 : BCRS는 웨스트 미드랜즈(West Midlands) 지역경제에 실제 공헌을 하고 있지만 주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SMEs를 지원하고 있음. 지역 SMEs의 하나인 월솔지역공공운송기관(Walsall Community Transport)은 BCRS를 통해 4만 파운드의 대출을 받음.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장래의 계약 체결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은 물론 고용 안전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Unity는 BCRS를 지난 5년간 서포트해왔으며, 2013년 83만 6천 파운드를 운용에서 더 나아가 90만 9천 파운드를 투입함
- Unity로부터 서포트를 받은 또 다른 CDFI인 Key Fund. 북잉글랜드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적 웰빙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Key Fund에 2013년 Unity는 125만 파운드를 투입. RGF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기능함은 물론 유럽 지역개발펀드(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의 한계를 메우는 역할을 함
- Ability Tec은 사회적기업의 하나로 Key Fund의 재정 지원을 통해 혜택을 얻음. 한 때 볼튼(Bolton) 지역의 램플 로이 업체였던 Ability Tec은 정부의 재정지원삭감으로 2012년 문을 닫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 촉진의 일환으로 Key Fund에서 5만 파운드를 투자했으며, 그 결과 향후 3년간 30명에게 안정적 고용창출을 발생시킴

※ 램플로이(Remploy) : 신체 장애인들이 일하는 영국의 국영 제조회사

- Unity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원을 진행할 것이며 향후 CDFIs가 지역사회에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CDFI의 연합체인 CDFA(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Association) 운영 현황

- CDFI들의 연합체인 CDFA는 개별 CDFI들의 횡적인 연합체라기보다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중앙회와 유사한 상급단체의 성격을 가진 기구임
- CDFA는 현장 CDFI들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홍보, 공동 협력사업, 대정부 로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새로 설립되는 CDFI기관에 초기 설립자금을 지원하며, 자체 개발한 내부 의사소통시스템(PMF)을 제공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일종의 모법인(Mother Company)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CDFA가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운영자금 조달임
 - 과거에는 많은 자금이 지방정부들로부터 제공되었으나 최근 들어 중앙 정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임
 - 최근 영국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절반씩 분담하여 조성한 지역성장펀드(RGF)가 대표적 사례임
 - 이 지역성장펀드는 향후 6년간 7,800개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이 투자기금의 운영을 맡고 있는 조직이 지역 CDFI임
- CDFA와 영국 재무성(UK Treasury)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CDFA 산하 35개 CDFI기관에게 전액 배분되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기반 중소기업(SMEs)에 대한 투,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기반의 토종기업들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해줌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 향후 공동체 금융 발전을 위해 CDFA가 정의한 사명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재무부 협력기관으로서, 공동체금융에 대한 정부 정책 실현에 적극 협조
 - 공동체금융을 더 큰 금융서비스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
 - 튼튼하고 안정적인 공동체금융 협력체계 건설

- 은행과 CDFI간 전국 통합 네트워크 전산망 구축
- 풀뿌리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서비스 강화
- 공동체금융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선전활동 강화
- 중앙정부 산하에 CDFI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득
- 낙후된 지역에 사회목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② 빅소사이어티캐피탈(Big Society Capital)

□ 영국 사회투자 개요

- 영국의 경우, 10년 전에 정부 산하에 별도 추진팀(SITF)을 만들어 운영할 만큼 사회투자시장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적임
- 영국정부가 투자환경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힘쓴 결과 현재 50여개 남짓한 사회투자 중개조직들(SIFIs)이 만들어져 활동중이며, 2012년 1조 원 규모의 큰 사회기금(BSC)이 출범하여 이들 중개조직 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 빅소사이어티캐피탈은 세계 최초의 사회 투자은행(Social Investment Bank)으로, 사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조직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도매상(Wholesaler)이자 기금의 기금(Fund of Fund)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본인이 직접 지원 대상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에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현장조직 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주는 ‘간접’ 투자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 현재 영국 사회투자시장에는 기부를 전문으로 하는 전통적 자선단체(Charity)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전문기관 그리고 투자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창투자(SV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
 - 특히, 시장 자본을 사회투자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만든 사회적 증권거래소(SSE)도 운영

□ 영국 사회투자 중간지원체계 현황

- 대표적인 사회투자 중개기관은 소셜인베스트먼트비즈니스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펀드를 조성한 후, 공고 방식을 통해 선발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에게 저리 융자 및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성격의 투자를 해주는 기관임
 - 설립 이후 현재까지 1,300여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지원
 - 대표적 기금으로는 1)사회혁신기업가를 위한 기금 2)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금 3)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등이 있으며, 기금 운영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임
 - 자금조성 및 지원방법은 구성되는 기금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며, 규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됨
- 또한, 2002년에 설립된 브릿지스벤처스(BridgesVentures)는 영국 최초의 사회적 창투자(SVC)임
 - 현재 보유자산은 4천만 파운드로, 영국정부와 창투자들이 각각 50%씩 출자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재무적인 목표(Financial Return)를 함께 가져간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회목적투자 기관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펀드는 3가지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산펀드(Property Fund), 혁신적 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지속가능펀드(Sustainable Growth Fund), 사회적 기업 등 사회혁신기업가들에게 투자하는 혁신기업가펀드(Social Entrepreneur Fund) 등이 있음
- 최초 자선단체(CAF)로 출발해 정식 은행으로 변신한 채리티뱅크(Charity Bank)도 대표적인 사례임
 - 융자 대상은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지역공동체회사(CIC)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일반 개인들이며, 융자규모는 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까지 사업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됨

4. 영국의 지역주민 주도형 사회적경제 운영 구조

1) 도시지역의 주민주도 사회적경제 사례 :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①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개요

□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의 위치와 주요 시설현황

- 영국 런던의 코인 스트리트 지역공동체는 런던 템즈강변 남단에 인접한 서덕 (Southwark Borough) 자치구에 위치
 - 런던의 32개 자치구 중에서 템즈강변에 인접한 도심에 자리한 서덕 자치구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템즈강을 통한 해운 및 항만 기능이 쇠락하면서 지역이 낙후된 곳임
 - 지리적으로 서덕 자치구는 워털루 역과 런던 템즈강변의 복합문화지구인 사우스뱅크(South Bank)와 인접한 자치구이며,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위치
-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는 지역 연계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었으나,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의 노력과 주변 문화복합지구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었음
-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는 런던광역시로부터 불하받은 국공유지에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임대주택과 공원, 강변산책로 등의 공공시설, 그리고 지역 내 고용창출을 위한 수익시설 및 커뮤니티 복지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 이를 다시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재투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끊임없는 재생산을 유도해 낸 영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업으로 성장하였음
-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기업의 주요사업과 시설은 크게 임대주택 건설, 옥소타워 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 운영, 가브리엘 부두의 상업시설 임대, 베르니에 스페인 가든 등과 같은 공원 설치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계획 중인 둔 스트리트(Doon Street) 개발계획을 제외한 코인스트리트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시설물의 위치와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음



<그림> 코인스트리트 전경



<그림> 코인스트리트 시설물 현황

□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 형성의 역사

- 사우스뱅크에 위치한 코인스트리트 지구는 산업혁명 후 템즈강 수운을 이용한 화물수송의 해안 거점이었음
-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운업 쇠퇴로 인한 부두 폐쇄로 실업률 증가와 인구감소가 시작되면서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함

- 1970년대 초반 템즈강변 남단에 런던광역시청(Greater London Council) 건물이 지어지고 사우스뱅크가 문화예술지구로 조성되면서 코인스트리트 주변 지역에도 런던의 도시변화에 따른 개발압력이 생기기 시작했음
 - 1970년대 런던이 국제금융도시를 지향하자 강과 인접한 도심에서의 재개발압력은 사우스뱅크까지 밀려왔고, 1974년 민간개발업자는 유럽 최대의 초고층 빌딩 건설을 계획 하고 바닥연면적 13만 제곱미터인 사무소와 호텔 개발을 신청하면서 코인스트리트의 역사는 시작됨
 - 가난한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재개발 계획안에 불만이었던 사우스뱅크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지역의 다양한 활동그룹을 집결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코인스트리트지구 마을만들기 운동의 시작임
- 코인스트리트의 운동은 지구의 개발 플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작업그룹인 코인스트리트 액션 그룹을 1977년에 결성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1979년 주민들은 주택개발과 공원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 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을 신청하게 됨
 - 코인스트리트 계획안은 이곳에 토지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민간 개발업자와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운동을 펼친 코인스트리트 그룹연합체 모두가 제출
 - 정부는 1979년 공청회를 개최하여 양측 계획안이 타당한지를 검토
 - 1차 제안한 양측의 계획안이 모두 반려되고 다시 제출된 수정안 수정안에 대한 2차 공개심사가 개최되었는데 검토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처음 계획을 신청한 후 4년이 지난 1983년, 마침내 민간 개발업자와 주민들의 개발 계획안 모두가 인정받게 됨
 - 그러나 민간개발업자인 그레이코트 컴퍼니(Graycourt Company)는 4년간의 심사기간 중에 경제상황 악화로 임대사업자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에서 물러나게 되었음
 - 이로서 코인스트리트 지역주민들의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었던 것임

- 먼저 개발계획을 포기한 민간개발업자인 그레이코트 컴퍼니는 1984년 3월 2.7ha의 토지를 런던광역시에 250만 파운드에 매각
- 이에 따라 런던 광역시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복합시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조직인 코인스트리트 마을만들기 사업체가 1984년 설립
 - 런던 광역시청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사들인 2.7ha의 토지와 런던광역시청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5.2ha의 토지를 코인스트리트 마을만들기 사업체에 매각하였는데 당시 시장가격으로 는 400만 파운드였으나 불과 75만 파운드에 매각
 - 토지이용계획을 중·저소득자용 주택, 경공업 공장, 오픈스페이스로 제한했기 때문에 특전이 주어진 셈임
- 토지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은 런던광역시청으로부터 융자를 받았고 런던광역 시청이 설립한 투자육성회사인 기업공사로부터도 융자를 받았음
- 주민들은 ‘노동자가 살며 일하는 터전’ 으로서의 도시 재개발 안을 원했는데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은 400호의 주택과 레크리에이션 시설, 그리고 1200명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작업장,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시가지 형성이었음
- 코인스트리트 사업체는 취득한 5.2ha의 토지를 에셋 매니지먼트(Asset Management)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재개발사업으로 배제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뿐만 아니라 녹지공원, 강가의 산책로, 복지서비스 제공 같은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
- 이후 마을만들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2년도 수입이 400만 파운드에 이름

〈표〉 코인스트리트 지구의 활동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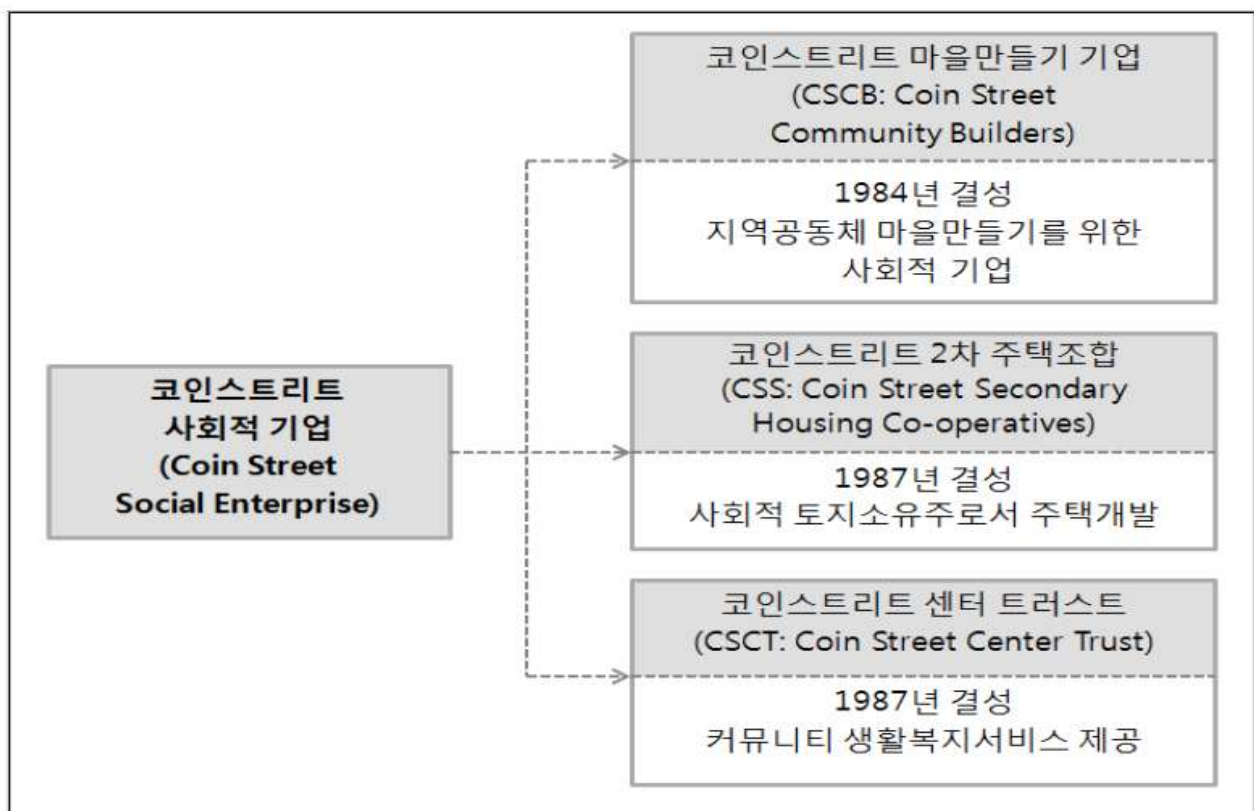
구분	년도	코인스트리트 지구에서의 주요 활동
지역 쇠퇴시기	1950년대	인구 5만 3000명, 근린관계의 강한 커뮤니티 형성
	1970년	인구 2만명 규모로 지역쇠퇴
마을만들기 운동 전개시기	1972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워털루 그룹 결성
	1974	코인스트리트 지역에 민간개발업자가 고층 오피스와 호텔개발 계획 구상안 발표
	1976	워털루 그룹 연합체 결성
	1977	코인스트리트 액션 그룹 결성하여 주민 자력개발 계획안 제출
	1979	공개청문회 개최 런던광역시청(GLC)에서 민간개발업자와 주민계획안 모두 개발신청 각하
	1981	공개청문회 재계(82일간의 심의)
	1983	민간개발업자와 주민 개발신청 모두 허가
마을만들기 사업체에 의한 사업화	1984	민간개발업자가 소유 토지를 런던광역시에 매각하고 코인스트리트 주민들은 민간 비영리법인 사업체인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기업(CSCB)을 결성 런던광역시가 토지 전체를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기업에 매각
	1985	코인스트리트 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멀버리 주택조합 설립
	1988	멀버리 주택조합에서 임대주택 56호 건설 가브리엘 부두 리모델링을 통해 마켓 개설
	1991	주변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지역 문화단체와 함께 사우스뱅크 임플로이어스 그룹 설립
	1992	주택 외의 자산관리 자회사 설립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축	1993	옥소타워 리모델링 시작하여 레드우드 주택조합 임대주택 완공
	1994	팜 주택조합 임대주택 완공
	1996	옥소타워 상업임대건물 영업시작
	2002	사우스뱅크 임프로이어스 그룹과 연대하여 사우스뱅크와 도심을 잇는 버스 서비스 유치
	2005	어린이 보육원과 스포츠 시설 운영둔 스트리트 고층복합빌딩 건설계획 신청
	2007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센터 개관

자료: 이영범, 2013, “지역공동체 기업의 사회적 개발에 관한 연구: 런던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EU연구」 제33호, pp.281-312.

②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방식

□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 사업체의 구성

-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는 취득한 5.2ha의 토지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재개발사업으로 배제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뿐만 아니라 녹지공원, 강가의 산책로, 복지서비스 제공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실현
 - 이후 마을만들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2년도 수입이 400만 파운드에 달함
- 이러한 사업을 위해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내부에는 지역주민이 만든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CSCB),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CSS), 그리고 Coin Street Center Trust(CSCT)가 활동
 - 이들 3개의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 내의 사회적 기업은 서로 동일한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고 마을기업으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수행



<그림> 코인스트리트 내 사회적기업 유형

-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CSCB)는 1984년 결성된 사회적 기업이자 개발
트러스트임
 -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CSCB의 멤버들에 의해 선출
 - CSCB의 멤버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가입이 가능하며 CSCB를 통해
만들어진 수익은 다시 CSCB의 공적 활동을 위해 재투자됨
-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 (CSS)는 1987년 결성되었는데 사회
적토지소유주로서 주택개발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임
 - 그리고 Coin Street Center Trust (CSCT)는 1987년 결성되었고 커뮤니티의 어린
이와 가족단위의 생활복지를 담당
 - 향후 이 지역에 추가로 개발될 수영장과 레저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할 예정

□ 코인스트리트 사회적기업의 운영 방식

-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자산관리를 통한 사회적 개발은 크게 임대
주택건설 및 운영, 주차장 운영, 상업시설 임대, 스포츠센터 운영 등으로 구분됨
 - 이 중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은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기 때
문에 수익을 발생시키지는 못함
 - 오히려 지역공동체 내의 상업시설의 임대나 직접 운영을 통한 자산관리에 의해
수익을 발생시켜 임대주택의 임대료 보조 등과 같은 수익 이전을 실현
-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 600만 파운드(15년간 총액)는
주택금융이나 램베스구와 서덕구로부터의 차입금 등 공적 섹터로부터 저금리용
자를 받고 민간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
- 코인스트리트 마을만들기 사업체의 직원급여, 토지구입대금을 포함한 대출액 변제,
보험 등의 제 경비 지불은 우선 주차장 경영과 임대점포경영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사업시설로부터 나오는 임대료로 충당
- 토지는 코인스트리트 마을만들기 사업체가 소유하고 주택은 협동조합에 의해 임
대료 한다는 원칙은 부동산 자산을 커뮤니티 전체가 소유하는 공유의 원리로
관철되어 있음

- 주택개발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별도의 주택조합(Housing Cooperative)이 담당
 - 주택조합의 경영은 코인스트리트 마을만 들기 사업체의 중핵을 이루는 사업으로서 사회적 사명을 지키고 있음
 - 주택조합은 코인스트리트 마을만들기 사업체에서 용지를 빌려 주택개발과 관리 운영을 하는데, 조직을 주택조합(Housing Co-operatives)과 2차 주택조합(Secondary Housing Co-operatives)으로 나누어 기능을 분담
 - 주택조합은 입주자로 구성되며 주택관리와 임대료 징수 등 주택관리 운영 임무를 담당하고, 2차 주택 조합은 건축가, 회계사, 변리사 등 주택설계와 건설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 되어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맡고 있음
-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시장가격의 거의 1/5수준이라는 낮은 집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조합이라는 주택개발방식을 선택
 - 공영주택은 대처정부의 매각정책 등 정치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했으며, 민간기업에 의한 주택공급 역시 시장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함
- 코인스트리트 주택조합은 각각의 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별도의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
 - 1988년 56호의 멀버리 주택을 시작으로 1994년 27호의 팜 하우스(Palm Housing), 1996년에는 78호의 레드우드 주택 (Redwood Housing), 2001년에는 59호의 이로코 주택(Iroko Housing)이 완공
 - 공영주택 계획공급물량은 총 400호이며 지난 20년간 220호 주택을 공급
-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의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은 2002년 기준으로 연간 360만 파운드의 총 수입을 올렸으며,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음
 - 1999년 실시한 주민요구 설문을 통해 도서관과 수영장 등 실내 실외 스포츠시설, 보육원, 어린이 시설 등이 장래사업계획에 도입
 - 코인스트리트 지역공동체 사업체는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2005년 1월에 보육원을 개설

- 새로 건립된 커뮤니티센터에는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센터 외에 학습기업 지원 센터가 들어왔는데, 학습기업 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IT환경, 직업훈련, 취업기회 개최 등을 지원
- 또한 소규모 상가와 레스토랑공간을 시장원리로 빌려주고 커뮤니티 카페와 집회소 등을 지역서비스로 제공

〈표〉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의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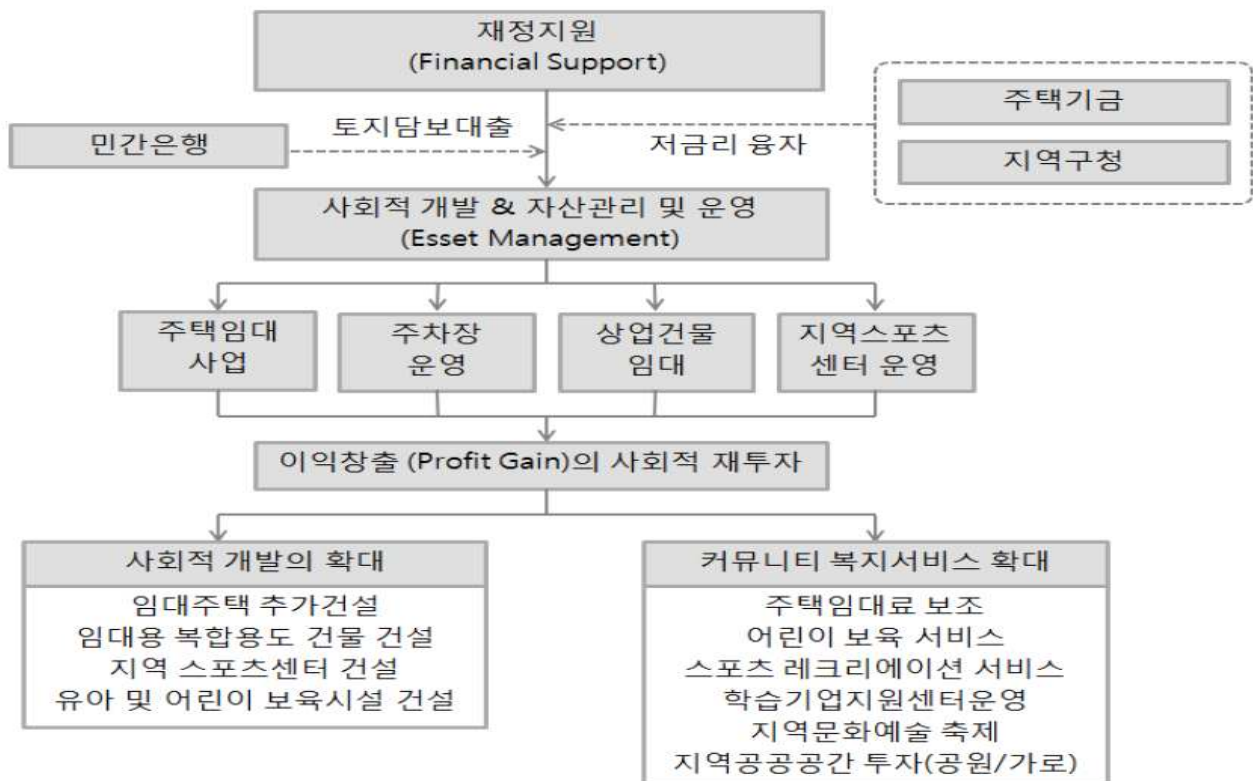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율
총 수익	360만 파운드	100%
상업시설 임대료	195만 파운드	54%
주차장 수익	80만 파운드	22%
옥소타워 레스토랑 임대료	45만 파운드	13%
기타	40만 파운드	11

-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는 지속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개발을 통한 수익의 선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를 통해 인근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 현재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는 기존 공동체의 시설과 인접한 자리에 대규모의 둔 스트리트 개발 계획을 추진
- 둔 스트리트 개발은 실내수영장 같은 스포츠시설, 댄스교실, 레저센터, 주택, 상점, 공공 스페이스 등이 들어선 고층 복합건물의 개발이다.
- 이 개발은 커뮤니티 내외부로부터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심각한 비판을 불러 일으킴

□ 코인스트리트 공동체가 갖는 함의

- 커뮤니티 기업은 사회적 기업 중에서 주체와 사업영역이 커뮤니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분됨
-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CSCB)는 지역공동체에 의해 운영되며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기업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온 자발적인 주민조직체 (Voluntary Sector)로서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달성함과 동시에,
- 자산개발 (Asset Management)을 통한 시장의 확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은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보다는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을 지니며,
- 코인 스트리트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마을기업의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공동체 내의 임대주택의 확장이나 임대료 보조에 일차적으로 활용되며, 지역의 커뮤니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됨
- 즉 코인 스트리트가 보여준 마을기업 사업체의 ‘커뮤니티를 기업화하고 커뮤니티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사회적 개발과 순환’은 지역공동체 기업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그림〉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기업의 자산관리 현황

2) 농촌지역의 주민주도 사회적경제 사례 : 플런켓재단

① 플런켓재단 개요

□ 플런켓재단 설립 배경 및 연혁

- 현재 영국의 농촌지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음
 - 매년 농촌지역 평균연령이 3개월씩 올라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매년 40만명 정도가 도시로 이주하거나 농촌에는 살아도 일자리를 찾아, 수입이 더 나은 직장을 찾아 도시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이유로 영국의 농촌지역에서 상점이나 펍 등이 문을 닫는 현상이 많으며, 핸드폰 이용서비스가 어렵고 인터넷 인프라 구축도 부진한 상황
- 하지만, 영국의 농촌에서는 마을주민들이 협동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데 플런켓재단과 옥스퍼드지역 농촌이 대표적인 지역임
- 1919년에 설립된 플런켓재단은 농업과 농촌문제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운동 전문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 1990년대 이후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농촌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음
 - 플런켓재단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협동을 통한 지역경제 번영을 위해 몸을 바쳤던 호레이스 플런켓(Horace Plunkett)경에 의해 1919년 설립
 - 당시 산업혁명이 불어 닥치면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 농촌지역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던 플런켓 경은 ‘협동’을 통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강조
 - 농사에 필요한 기계구입에 함께 투자하고 마케팅과 자금을 공유하는 협동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플런켓재단의 활동은 시작됨
- 플런켓재단은 ‘더 나은 농업방식, 더 나은 비즈니스, 더 나은 삶’을 슬로건을 내걸고 협동조합 설립운동에 박차를 가해 1920년대 말까지 영국 전역에 1천114개의 조합이 설립되는데 기여

- 특히 최근에는 마을소유 농촌가게 (community-owned rural shop), 마을소유 농촌서비스 (community-owned rural service), 커뮤니티 먹거리 및 농업관련 사회적 기업 (community food and farming enterprise)을 주요한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음
- 플런켓재단은 영국 옥스퍼드셔에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범위는 영국 전체이며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농촌/농업관련 협동조합 운동의 대표적인 정보센터이자 전문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20 여명의 실무자들이 4개 주제에 걸쳐 20여 개의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② 플런켓재단의 운영 구조

□ 주요 활동 내용

- 플런켓재단의 주요 활동 분야는 마을소유 농촌가게, 마을소유 농촌서비스, 커뮤니티 먹거리 및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그리고 전통적 활동분야인 농촌/농업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연대임
- 마을소유 농촌가게는 기존 마을단위 점포들이 수익성의 문제로 인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마을주민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작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모델임
 - 일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면서 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함
 - 보다 중요한 기능은 주요하게 지역주민들의 자원활동을 통해 운영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사회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임
- 2011년 기준 265개의 마을소유 농촌가게가 영국 전역에 걸쳐 있으며, 2010년에 문을 연 24개의 마을소유 농촌가게 중 22개가 플런켓재단의 지원을 받았음
 - 회원제도를 통해 마을소유 농촌가게들에 에너지, 보험, 신용카드 시스템 등에 관련한 유료서비스를 제공함.

- 마을주민들이 출자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은 마을주점 (pub), 무선인터넷, 대중교통, 주택 등임
 - 플런켓재단이 주요하게 지원해온 것은 협동조합 마을주점 (cooperative pub)인데, 2010년 100여 건 이상의 협동조합 마을주점(cooperative pub) 설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받고 협동조합 운동 조직들과 함께 다양한 지원서 비스를 제공
 - 플런켓재단에서는 독거노인, 차 없는 젊은이들, 차가 없는 가족들, 저소득층 등 교통이용약자들을 위해 공동체가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땅을 파고 벽을 뚫어서 광케이블을 설치해, 일요일에 교회를 못가는 주민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교회예배를 중계하거나, 지역에서의 스포츠경기도 인터넷을 통해 중계하고 있음
- 또한, 전국복권위원회(National Lottery)의 재정지원으로 플런켓재단과 Cooperatives UK 등 7개 조직들이 파트너를 이루어 수행하고 있는 “Making Local Food Work” 프로젝트를 통해 재단은 로컬푸드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
 - 2010년에 89개 농민시장(farmers’ market)이 컨설팅을 받았고, 160개 마을 소유 농촌가게에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먹거리 및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107개를 지원
 - 커뮤니티 먹거리 및 농업관련 사회적기업은 지역 농산물의 재배, 수확, 가공, 마케팅, 유통, 판매 등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마을소유 기업의 형태로 구현
- 이외, 플런켓재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농촌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 귀농귀촌 인구를 위해 농촌지역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협동조합(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Community Land Trust)을 조직하도록 돕고 있으며,
 - 최근에는 대중교통, 공동농장, 마을에너지, 인터넷망 구축 등 이런 사업들을 마을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원

□ 재원조달 방식

- 플런켓재단의 2010년 연간 예산은 300만 파운드로서 프로젝트를 매개로 한 공공 부문으로부터의 재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점차 감소 추세
 - 공공부문 재정에 의존함으로써 겪게 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불확실했던 회원개념을 정비하여 마을소유 농촌가게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도를 정비
- 재정 상당부분은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조달
 - Making Local Food Work 프로젝트 : 5년간 1,000만 파운드 (National Lottery)
 - Village SOS : 1년간 130만 파운드 (BIG lottery fund, BBC)
- 기타 재원으로는 정부보조금, 서비스 관련 수수료, 기부금, 회원회비 등이 있음
 - 정부 관련 부처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보조금, 조사연구 비용, 컨설팅 비용, 자선기관 및 기업의 기부, 회원회비 등으로 구성

③ 플런켓재단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 우톤 마을 상점

- 우톤 마을상점은 2007년 장사가 되지 않자 주인이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주민들이 돈을 모아 상점을 인수하면서 시작됨
- 당시 60명의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1만5천 파운드의 출자금을 모았고, 여기에 지방정부로부터 1천 파운드의 지원금과 은행대출금 2만 파운드를 마련해 상점 인수와 내부시설을 보강
- 상점 운영은 650여명의 마을주민 중 45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1주일에 2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산대를 보고 있고, 상근직원 1명이 물건의 입출고 등 상점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음
- 주민 8명으로 구성된 마을상점운영위원회는 1년에 6회 정도 모여 상근직원에 대한 급여, 이익금의 사용처, 회계감사 등의 의결 기능을 수행

- 마을상점이 문을 열고 첫 1~2년은 적자였으나,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으며, 현재 수익의 대부분은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음
-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 지켜낸 마을 유일의 상점은 현재 상점 역할이외에도 주민 대상 정보제공, 허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 태클리 마을상점

- 태클리 마을은 지방정부로부터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았고, 4년간 10만 파운드를 모금하고 30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리모델링한 후, 2003년 마을상점 문을 열었음
- 우톤상점과 다른 점은 5명의 직원이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점 옆에 카페가 별도로 있어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47%의 마을상점이 이렇게 카페기능과 휴식공간 제공하고 있음
- 반면, 10대부터 80대까지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적게는 1달에 2시간, 많게는 1주일에 6시간씩 봉사하는 것은 우톤 마을상점과 비슷한 구조
- 태클리 마을상점은 이익금에 대한 처리(재투자는 가능하지만, 이익분배는 안됨)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할 정도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운영될 정도로 마을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음
- 또한 센터의 나머지 공간들은 운동·취미교실, 음식강좌, 대관사업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음

〈Plunkett의 마을소유 농촌가게 네트워크〉

- Plunkett 마을소유 농촌가게 네트워크는 마을소유 농촌기업들을 위한 회원제도로써 마을소유 농촌가게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부문으로 대변하고, 시장에서의 협력과 이를 통한 경비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며,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마을소유 농촌가게들은 유리한 가격으로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회원 가게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구성되는 서비스 패키지에는 마을소유 농촌기업들의 설립과 운영에서 요구되는 전기 (Cooperative Group), 보험 (NFRN Mutual), 신용카드 서비스 (Ethecol Merchant Services CIC), 전화/인터넷 (Phone coop), 내부 설비와 용품, 판매물품, 컨설팅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과 Plunkett 재단 회원자격이 포함 됨.
 - 서비스 공급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조직들로서 윤리적인 성격을 가진 파트너들임.
- 네트워크의 운영위원회는 7명의 마을소유 농촌가게 대표자들과 2명의 재단 관계자 들로 구성되며, Plunkett 재단이 회원 가게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동시에 재단이 회원들의 필요와 이해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 네트워크의 재정은 개별 가게들의 연 240파운드 회비와 서비스 공급자들로부터의 수수료를 통해 조성되며 Plunkett 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네트워크의 유지비용과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됨.
 - 재정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의해 모니터링 되며, 회원가게들에게 연간보고를 하게 됨.

Ⅲ. 영국 사회경제 사례 심층 분석

Ⅲ. 영국 사회적경제 사례 심층 분석

1. 영국사회적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UK)

1) 개요

□ SEUK 설립 배경

- 영국사회적기업연합회는 영국 사회적기업들을 대변하고 통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설립
- 연합회는 2012년 런던사회적기업연합회와 사회적기업연합이 합병되면서 영국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기구로 재탄생
 - 1998년 런던 내 대표 협동조합과 중간지원기관이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런던사회적기업연합회와 2000년 설립된 전국 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인 사회적기업연합이 통합되면서 설립
- 풀뿌리 지역단체에서부터 수백만 파운드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체를 포함한 공공, 민간 부문의 다양한 조직들이 회원으로 가입

□ 기관 주요 사업

<표> 영국사회적기업연합회 주요 사업

구분	내용
자문(advice)	-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자선단체,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법, 소셜임팩트, 자원조달, 크라우드펀딩, 공급 사슬 연계, 사회 투자 등에 대해 자문
지원서비스	- 컨설팅 : 경영, 자원조달, 비즈니스모델 등 컨설팅 - 사회적기업 투어: 영국 내 사회적기업 투어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브리핑
연구	- 사회적기업 통계 2015, THINK GLOBAL, TRADE SOCIAL (2015), COMMUNITIES COUNT (2014) 등 다양한 연구보고서 작성
행사	- 사회적기업 어워드 개최 - 바이 소셜(Buy Social) 캠페인 개최
사회적기업 지구 프로그램 운영	- 시군, 마을 단위의 우수 사회적기업 활동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지구 지정

□ 기관 역할

- 연합회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
-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이벤트 등도 추진

2) 인터뷰 주요 내용

방문기관	Social Enterprise UK	방문시간	14-16시
면담자	James Butler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g.uk/
주 소	The Fire Station 39 Tooley Street, London, SE1 2HZ	연락처	Tel : 44-(0) 203 589 4957



① 영국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 영국에서 만들어진 소셜엔터프라이즈는 1800년대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초기 소셜엔터프라이즈는 잉글랜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
- 이는 산업혁명 시기에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겪었던 주택난, 치안, 고아 문제 등 최소한의 복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 이후 1980년대 들어 많은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영국사회에서 공정무역과 같은 비즈니스가 자리잡기 시작함
- 1990년대 후반 신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고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함에 따라 공동체이익회사, 자선주식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확산
- 2010년 보수당정부가 들어오면서 빅소사이어티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 양 시기에 있어 각 정권별로 정책의 방향은 상이했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인식
 - 노동당은 제3의길이라는 아젠다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아닌 제3섹터의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사회적기업과 연계되어 적극적인 육성 정책으로 이어짐
 - 보수당은 빅소사이어티라는 아젠다를 내세우며 시민사회 전반의 역량강화와 함께 공공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강조
- 최근 정부에서는 ‘미션 주도형 비즈니스’ (Mission-led Business)를 강조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장려
- 한편, 영국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
 - 첫째, 영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자체가 새로운 모델로 부각. 이는 최근 영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득격차,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재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둘째, 많은 회사들이 자기 기업이 사회적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의가 없기 때문임. 제한된 법으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규정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일부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경우도 존재

- 영국에는 약 7만개의 사회적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정확한 범위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규모가 클 수도 있음
 -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2년 국무조정실 내 비즈니스혁신기술부에서 실시한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에서 제시하고 있음
 - 이 조사는 소기업 현황 통계조사(Small Business Survey)를 근거로 5,723개의 통계표본을 설정하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기업 여부를 파악
 - 이와는 별도로 SEUK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9,024개 사회적기업 리스트에서 650개 기관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기업의 매출액 및 운영성과에 대한 조사도 실시

〈영국의 사회적기업 연혁〉

- 1844년 : 로치데일 협동조합
- 1960년대~1970년대 : 공정무역 운동
- 1980년대 : 협동조합 활동에 의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 시작
- 1993년 : Locality(개발 트러스트) 설립
- 1997년 : 기업 이익, 환경 지속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측정하는 비즈니스 원칙인 ‘triple bottom line’ 실행
- 2001년 : 중앙정부 DTI에 의한 Social Enterprise Unit 설립
- 2001년 : Social Enterprise UK 설립
- 2002년 : 중앙정부 주도 사회적기업 전략 수립
- 2005년 : 공동체이익회사 제도 설립
- 2006년 : 중앙부처 내에 제3섹터사무국 설립
- 2006년~2010년 : 많은 사회적기업 설립
- 2010년 : 빅소사이어티 및 사회투자 추진
- 2016년 : 미션 주도 비즈니스 전략 추진

- 한편, 7만개 기업 모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영국 정부에서는 소셜엔터프라이즈 마크를 인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함
 -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
 - 독립적인 비즈니스일 것
 - 최소한 수입의 50% 이상은 상거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질 것
 - 최소한 수익의 50% 이상은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목표를 위해 쓰여야 함
 -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보고할 수 있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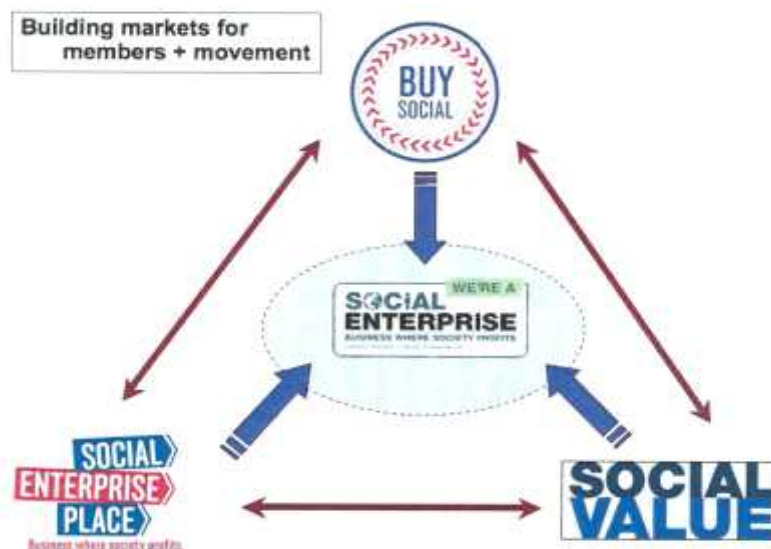
② SEUK의 조직 형태 및 수익구조는?

- SEUK는 잉글랜드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대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1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버밍엄에 지역사무소를 운영
- SEUK는 사회적기업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0개 이상의 기관들이 가입해 있으며,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멤버로 활동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회사, 케미컬회사와 같은멤버들이 다수를 차지
- 초기 2001년에서 2002년에는 협동의 개념으로 파트너십을 운영했으며, 2012년부터 2012년부터 멤버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운영
- SEUK는 다양한 재원을 통해 운영되는데 크게 멤버십 회비, 컨설팅 수수료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
 - 멤버십 회비는 기관의 매출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하고 있음
 - 컨설팅의 경우, 산탄드라운행, 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공헌활동을 추진할 때 UK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사회적기업 대상 정책을 추진할 때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브리티시 카운슬과 같이 국제적인 컨설팅도 추진
- 이외 정부에서도 소액의 지원금이 있는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정부의 지원금은 소셜 세터데이라는 이벤트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약 6~7천만원 정도의 규모임

③ SEUK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 SEUK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크게 바이소셜, 소셜밸류, 소셜엔터프라이즈 플레이스라는 세가지의 사업을 추진
- 또한, SEUK의 세가지 사업은 사회적기업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회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기업들이 멤버십으로 가입하는 주요 요인



□ 바이소셜(Buy Social)

- 바이소셜은 SEUK의 주력 캠페인으로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임
- 이는, 공공과 민간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때 구매 결정이 갖는 사회적 영향을 생각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근간으로 작용



- 특히, 바이소셜은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의 물건을 구매했을 때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
- 이러한 바이소셜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B2B 방식보다는 B2C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바이소셜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공정 거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이것의 일환으로 소셜 토요일(saturday)라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행사에는 공공기관, 미디어, 사회적기업, 일반 기업 등이 모여 교류
- SEUK는 바이소셜 홍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
 - 전국 신문 광고 : 전국적인 신문에 정기적으로 광고
 - 로컬 매체 활용 : 로컬커뮤니티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소셜미디어 활용 :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구청이나 지방정부 자체가 정부 주정부에게 우리는 일자리는 우리가 창출해야되고 우리 이 로컬에서 뭔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바이소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 소셜밸류(Social Value)

- 소셜밸류는 2012년 Social Value Act가 신설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서포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해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최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일례로 공공서비스 중 하나인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정서를 고려하여 이를 완충시킬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사회적기업화가 대두되고 있음

- 실제로 지역 의료복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가 많이 제시되고 있어 정치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기업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33%)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가치법을 신설한 것임

□ 소셜엔터프라이즈 플레이스(Social Enterprise Place, SEP)

- SEP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SEP의 공간적 범위는 마을, 도시, 구역, 거리 등 다양하게 나타남
 - SEP는 중앙정부가 2010년에 추진했던 소셜엔터프라이즈존 사업이 없어지자 작동원리를 수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
- SEUK는 해당 지역 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킨 곳을 발굴하여 SEP 배지를 수여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으로 홍보해주는 역할을 수행
- SEP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지역적 고립성, 공공기관 이전 지역, 저소득 지역 등이며, 자체적인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함
 - SEP는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타 지역과 완전히 독립되서 완전히 떨어져있는 지역, 아주 소득이 낮은 지역, 공공기관들이 이전하여 지역이 쇠퇴해 버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이런 지역의 경우, 지역의 로컬숍이라 불리는 지역 상권이나 우체국이나 펍이라고 하는 선술집 등이 방치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실업자나 경력단절 여성들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 시키려는 욕구와 사례가 많이 존재함
- SEP로 등록될 경우 해당 지역의 사회적기업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기업, 기부단체, 소비자, 사회적기업투자자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실상, SEUK는 SEP를 통해 직접적으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역할이 주를 이룸
- 일례로 SEP로 지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Alston Moor 지역의 경우 산속에 위치하여 버스가 하루 한 대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고립된 지역임
 - 해당 지역은 2000명이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근처의 대도시까지 20마일 이상 소요
 - 이 지역에 연간 40,000명이 이용하는 South Tynedale Railway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이용해 로컬 음식 제공,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 농부를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음식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어리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자전거 임대사업, 마을 빵집, 커뮤니티의 활동을 홍보하는 커뮤니티 인터넷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
 -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SEUK에서 SEP를 지정하고 집중 컨설팅 및 펀드 연결을 지원했기 때문임
- Toppesfield 커뮤니티 스토어의 경우, 지역에 있었던 우체국이 닫게 되면서 불편을 겪자 지역 내 조직인 플라워배드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운영을 시도
 - 이를 위해 동네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분을 판매하였고, 일하는 종사자를 마을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
 - 이를 시초로 이후 문을 닫은 펍을 구매하였으며, 이후는 맥주를 싸게 제공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맥주공장까지 구매할 정도로 성장
- Hill Holt Wood는 위의 사례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례는 해당 지역에서 제일 큰 기업을 하는 부부가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커뮤니티 우드랜드를 설립하면서 시작됨
 - 이 부부는 동네를 위해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는데, 지역 내 거대한 나무가 많은 땅을 구매하여 커뮤니티 우드랜드를 운영
 - 이 커뮤니티 우드랜드에는 다양한 카페와 더불어 학교 소품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적 콘텐츠 설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식 지원 등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을 추진

④ 향후 SEUK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 SEUK는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
- 정부의 지원이 적은 조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편당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초창기엔 정부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지원이 줄어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가입해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최대한 멤버십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또한,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도전임
- 현재 SEUK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커뮤니티주식유닛(Community Share Unit)

1) 개요

□ 설립 배경

- 커뮤니티주식유닛은 2009년부터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DGLG)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영국협동조합연합회와 로컬리티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음
- 커뮤니티주식유닛은 커뮤니티기업의 창업과 확장 시 제기되는 투자 문제를 커뮤니티 주식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주민들은 파산 위기의 지역주점이나 지역 축구팀의 소유권을 커뮤니티 주식 발행과 공모를 통해 공동으로 소유해 지역의 오랜 전통을 지켜나가거나,
 - 지역 내 친환경 커뮤니티 에너지 기업의 설립 등을 통해 싸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음

□ 기관 주요 활동

- 커뮤니티주식 스탠다드 마크(standard mark) 인증 시스템 운영
 - 인증 받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주식 운영시 필요한 문서 및 지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 주식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랜 그리고 연간 회계 운영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함
- 커뮤니티주식 멤버십 관리
 - 영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730개의 커뮤니티 주식 운영 주체들에 대해 멤버십 관리
- 커뮤니티 주식 발행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 지원
 - 커뮤니티주식유닛은 커뮤니티 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툴을 통해 쉽게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커뮤니티 주식 관련 핸드북 발간

- 커뮤니티 주식 핸드북은 ①커뮤니티 주식 개요, ②법제도, ③정부의 지원체계, ④잉여이익의 배분 방식, ⑤세금 등에 대해 상세히 제시

□ 기관 역할

- 커뮤니티주식유닛은 커뮤니티 주식 발행으로 커뮤니티기업의 창업이나 성장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
- 커뮤니티 주식 발행을 위해 커뮤니티 주식의 특징 및 지배구조, 커뮤니티 주식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한 사업 종류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구축
- 또한, 정부의 정책 개정을 촉진하고, 일반 시민에게 커뮤니티 주식을 알리는 활동을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진행

2) 인터뷰 주요 내용

방문기관	Community Share Unit	대 표	15시-17시
면담자	Alice Wharton	홈페이지	http://communityshares.org.uk
주 소	Holyoake House, Hanover Street Manchester M60 0AS	연락처	44-(0)161 214 1762



① 커뮤니티 셰어란 무엇인가?

- 커뮤니티 셰어는 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펍, 축구구단, 에너지·환경 시설(또는 활동), 도시재생 활동 등을 지역주민 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함
- 영국에서 커뮤니티 셰어 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커뮤니티 셰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커뮤니티 셰어는 회사법(Companies Act)이 아닌 협동조합과지역공동체혜택회법(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y Act)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둘째, 커뮤니티 셰어는 주식을 뺄 수는 있지만 이전이 되지는 않으며, 커뮤니티에만 다시 팔수 있는 구조로 운영. 즉 커뮤니티 셰어는 커뮤니티의 이익이 목적이며 개개인의 이익은 목적이 아님
- 셋째, 커뮤니티 셰어는 한 사람은 하나의 투표권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음. 이로 인해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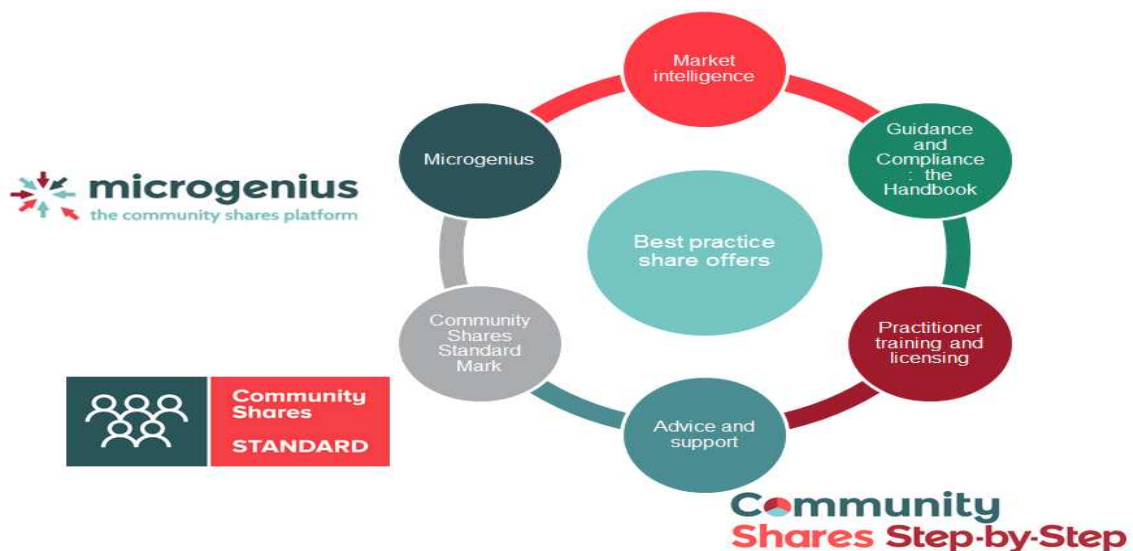
② 커뮤니티 셰어의 운영 방식은?

- 커뮤니티 셰어는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산 가격이 1파운드이면 다시 팔 때에도 1파운드에 팔아야 함
- 하지만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interest)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자 자체가 높지는 않음
- 보통 1~2%부터 8% 까지 이자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8%의 이자가 발생하는 영역은 에너지 부분임
- 커뮤니티 셰어는 그자체로 자금 확보라는 이점이 있지만 그 외에도 투자자들에 의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커뮤니티 셰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노하우까지 함께 제공 받을 수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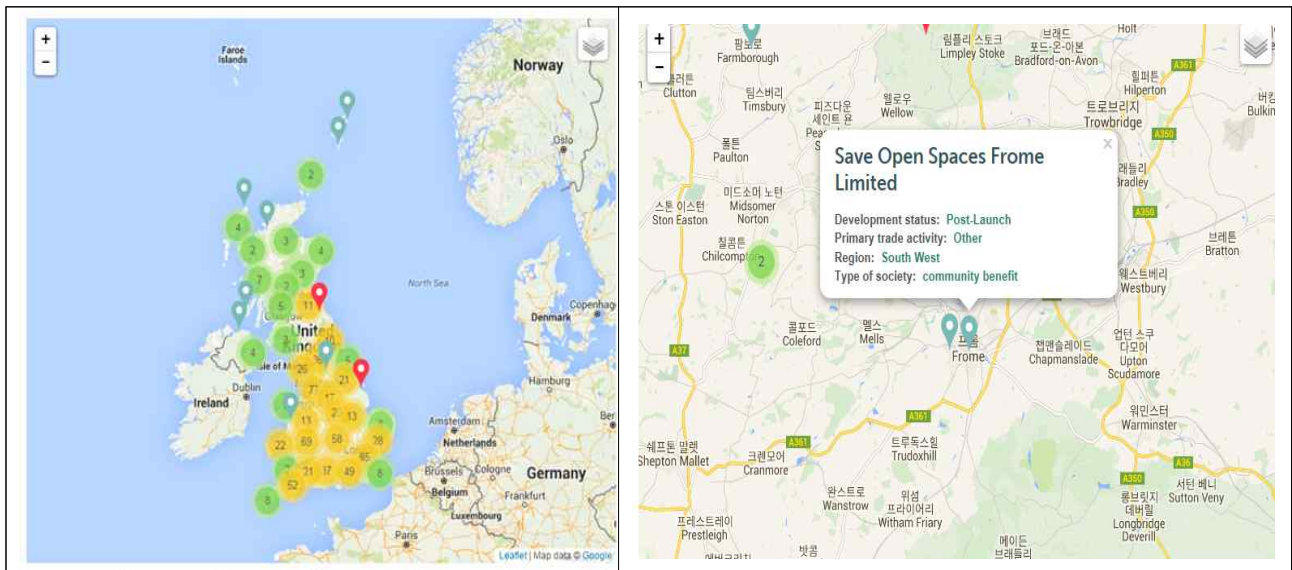
- 또한 투자자들은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홍보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커뮤니티 셰어는 일반 주식과 달리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투자한 자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인내자본의 성격을 지님

③ 커뮤니티 셰어 유닛의 역할은 무엇인가?

- 커뮤니티 셰어 유닛은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약 4억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커뮤니티 셰어는 2009년에 설립이 되었고 법적으로 잉글랜드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
- 스코틀랜드에서는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2016년에는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에도 이와 비슷한 기관을 운영 중임
- 커뮤니티 셰어 유닛은 커뮤니티 셰어를 원하는 커뮤니티를 발굴하여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 셰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크게 ①Market intelligence, ②Guidance, ③Step by Step tool, ④Community share standard mark, ⑤Practitioner training 등임



- ①Market intelligence는 지역별로 커뮤니티 셰어를 운영하는 마켓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콘텐츠임
 - 한 지역을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분야가 있는지, 각 동네 별로 구별되어 원하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년에 한번 매뉴얼 리포트를 출간
 - 이 웹사이트에서는 지역별로 커뮤니티 셰어를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발전 정도, 주요 거래 활동, 소사이어티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에너지에 관한 부분이 가장 인기가 많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됨



- ②Guidance는 커뮤니티 셰어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상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임
 - 실제로 지역적으로 정보 업데이트를 해 주는 주체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수집이 되어 정보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임
 - 지역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프랙티셔너인데, 커뮤니티 셰어 유닛에서 양성 및 관리하고 있음

- 프랙티셔너는 5회의 워크숍과 1회의 테스트를 거쳐 양성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프랙티셔너에 대해 신뢰를 갖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 정부의 부처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검색으로도 충분히 정보 탐색이 가능함

The Community Shares Handbook

The definitive guide for community shares - covering all the relevant legal requirements and voluntary good practice standards for share offers

1	INTRODUCTION TO COMMUNITY SHARES	▶
2	SOCIETY LEGISLATION	▶
3	GOVERNING DOCUMENTS	▶
4	OFFER DOCUMENTS	▶
5	PROMOTING OFFERS	▶
6	SHARE INTEREST AND THE USE OF PROFIT OR SURPLUS	▶
7	REGULATION AND GUIDANCE	▶
8	TAX TREATMENT	▶

View

Edit

CONTENTS

◀ PREVIOUS

NEXT ▶

6.2 Interest on share capital

All three types of society are allowed to pay interest on members' share capital. This sub-section applies only to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Interest on share capital in charitable community benefit societies is subject to separate guidance produced by the Charity Commission and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 (see Section 6.5).

The FCA's new registration guidance, published in November 2015, places two requirements on societies: the maximum rate of interest paid on shares is declared in advance of the period for which it is intended to be paid, whether in its rules or elsewhere and "the declared maximum rate of interest is the lowest rate sufficient to obtain the necessary funds from members who are committed to furthering the society's objects".

The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2014 does not require societies to state a maximum interest rate on share capital in their rules. However, most of the model rules suitable for community share offers do state a maximum rate. Typically, this is expressed as "2% above bank base rates", with some model rules adding "or 5%, whichever is the greater". One set of model rules says share interest rates "will not exceed the highest rate for fixed term business lending published by the Co-operative Bank".

Some model rules do not address the matter of share interest rates. If a society does not declare a maximum rate in its rules, the FCA expects it to declare a maximum rate elsewhere, presumably in its share offer documents, well in advance of any share interest being paid.

The FCA offers no guidance on how a society might determine the lowest rate of share interest that will be sufficient to obtain the necessary funds, or how the FCA will determine whether a society has breached this guidance. This suggests that the FCA considers this to be a matter particular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society. This is supported by historical evidence, which shows there is a wide range in the share interest rate policies of societies. In 2015 the CSU analysed 192 share offer documents, published between 2009 and 2014. It showed a wide range of share interest rate policies, from societies

View Handbook as PDF

PDF

Get instant support with our Step-by-Step tool

Most Read Pages

Charitable community benefit societies ▶

Distributions in co-operative societies ▶

Interest on share capital ▶

Tax treatment of charitable community benefit societies ▶

Converting a society into a company ▶

Consolidation of all advice materials to form Community Shares Handbook

Oversight from a technical committee of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FCA

Collaboratively developed with practitioners through an online platform

Regularly updated and monitored to ensure relevancy and accuracy

- ③Step by Step tool은 커뮤니티 셰어를 원하는 커뮤니티가 간편하게 자체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툴임
 - 커뮤니티 그룹이 단계별 입력을 통해 자신의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셰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는 툴을 운용 중에 있음
 - 이 툴을 통해 커뮤니티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방향을 도출할 수 있으며,
 - 최종적으로 액션 리포트를 작성하여 실제 커뮤니티가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또한, 많은 커뮤니티들은 이 툴을 통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 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음
 - 평가 지표는 3개의 Ste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거버넌스, 비즈니스모델, 커뮤니티 참여로 구성

INTRO	STEP 1	STEP 2	STEP 3	REPORT
	GOVERNANCE	BUSINESS MODEL	COMMUNITY ENGAGEMENT	

STEP 1: ARE COMMUNITY SHARES RIGHT FOR YOU?

GOVERNANCE

For each question you should select the answer or statement that most closely meets the current situation for your organisation. Where there is a slide bar you should choose the closest statement and answer in the "spirit of the question" rather than the specifics of the text, and by being completely honest with yourself. The slide bar allows you to adjust how strongly you fit the statement.

The first couple of questions will already have been answered as part of your registration - you may change the answers here if you wish.

Is your organisation already incorporated?

- ☒ Yes
☐ No
☐ Not sure

INTRO	STEP 1	STEP 2	STEP 3	REPORT
GOVERNANCE	BUSINESS MODEL	COMMUNITY ENGAGEMENT		

STEP 2: GETTING READY (DEVELOPMENT)

GOVERNANCE

This section of the diagnostic tool assumes that you were positive about the questions asked in the first section, and that you have the foundations in place to start developing your ideas; at a very minimum you should have:

- Formed an active board (management committee)
- Identified your target community
- Selected your model rules and registered as a society (or be in the process of registration)
- Established the scope and purpose of the business
- Identified the figure you need to raise from community investment
- Drafted an outline business plan

Have you contacted any of the following agencies for support with your project?

- None -



Select the most recent if you have contacted more than one.

The following questions are intended to guide you to an understanding of what needs to be covered before you launch an offer:

If there were any revisions necessary to your governing document (rules), have these been agreed & sent to the FCA for appro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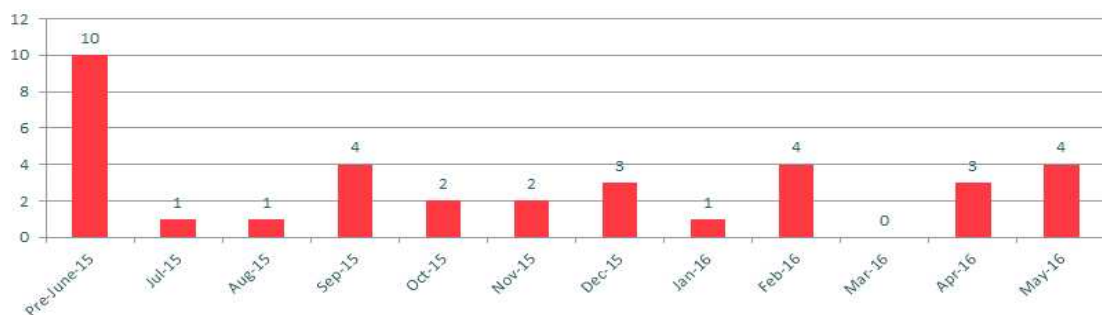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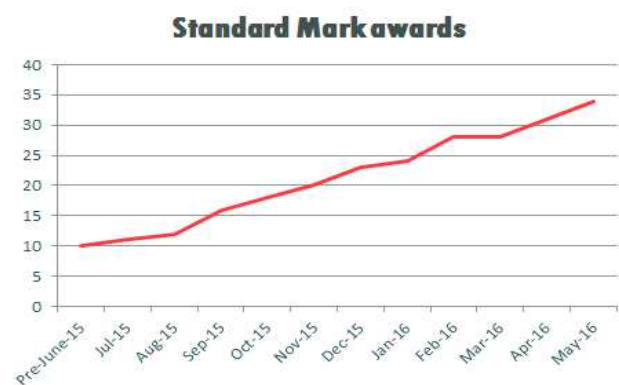
- ☐ No
- ☐ Yes

- ④Community share standard mark는 커뮤니티 셰어 유닛이 커뮤니티에게 부여하는 인증 마크이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 셰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향상 및 표준화된 운영을 유도하고 있음
 - 스탠다드 마크는 정부의 공인 인증마크는 아니지만 정부 사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대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
 - 이 인증마크는 투자자들이 불안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으로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이 마크를 인증 받은 커뮤니티가 자금을 대출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현재 35개 커뮤니티가 인증 마크를 수여 받았으며, 매달 3~4개 기관이 인증을 받고 있음
 - 새로 생긴 마크임에도 매달 마크를 받는 기관이 있는 것은 굉장한 성과이며, 다른 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스탬프나 로고와 비교했을 때 더욱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음



To date 35 share offers have been awarded the Standard Mark:

- 1 open offer
- 34 time-bound offers



Source: Community Shares Unit

- ⑤Practitioner training은 현장에서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웨어에 대한 전문 컨설팅, 마크 인증 등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임
 - 프랙티셔너는 커뮤니티 웨어 유닛에서 총 5회의 워크샵과 1회의 평가를 통해 라이선스를 부여
 - 교육 프로그램은 총 5회의 워크샵인데 1회 프로그램 소개, 2회 커뮤니티 참여, 3회 비즈니스 플래닝, 4회 거버넌스, 5회 문서 제안 및 인증 마크로 구성
 - 현재 프랙티셔너는 18명이 있고 시험을 보고 준비하는 후보생은 100여명 정도
 - 프랙티셔너의 활동비용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웨어 유닛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커뮤니티 웨어를 원하는 커뮤니티에서 컨설팅을 받을 경우 2~4일이 걸리는데 하루에 컨설팅 비용으로 500파운드(약 80만원)를 지불하도록 규정



Community Shares Practitioners can help you develop your ideas into a successful Standard Mark awarded share offer.

It can be useful to work with them when you are first developing your ideas and thinking about how you will engage your community to ensure their support.

Community shares practitioners can review your share offer documents to make sure that you have considered all aspects. They can also assess your share offer documents so that your share offer can be awarded the Community Shares Standard Mark.

There are Community Shares Practitioners across the UK and many specialise in certain sectors, such as community retail, pubs and brewing or community energy.

Login or register to connect with practitioners in our directory.



Jo Bird

Co-operative Business Consultants and Co-operative Alternatives

Jo has considerable experience in co-operative business advice, business and financial planning, crowd funding, board mentoring and governance...



Dave Boyle

The Community Shares Company

Dave has 14 years' experience of working with community enterprise, helping to raise over £11 in community shares.



Ben Dodd

Green Fox Community Energy Co-operatives

Ben has worked in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for 20 years and in 2012 co-founded the Green Fox Community Energy Co-operative.



Helen Meegan

played

5 years experience of a variety of developing community services.



Helen Melia

Melia Business Solutions

Helen is a business adviser specialising in community finance. Having had personal experience of setting up and running an award-winning community...



Tiziana O'Hara

Co-operative Alternatives

Based in Northern Ireland, Tiziana holds a ILM Certificate in Social Enterprise Support and have been involved in co-operative development since...



Dave Hollings

Co-operatives and Mutual Solutions (CMS)

Dave has advised 35 completed community share issues over the last 15 years raising £6 million of shares often topped up with other forms of...



Mark Johnson

Elderflower Legal & Secretarial Services

Mark Johnson is a commercial solicitor and ICSA-qualified Company Secretary with over 21 years' experience of developing successful new business...



James Mathie

Supporters Direct

James has worked in the sports sector for more than 10 years. He has spent the majority of that time providing development support to sports clu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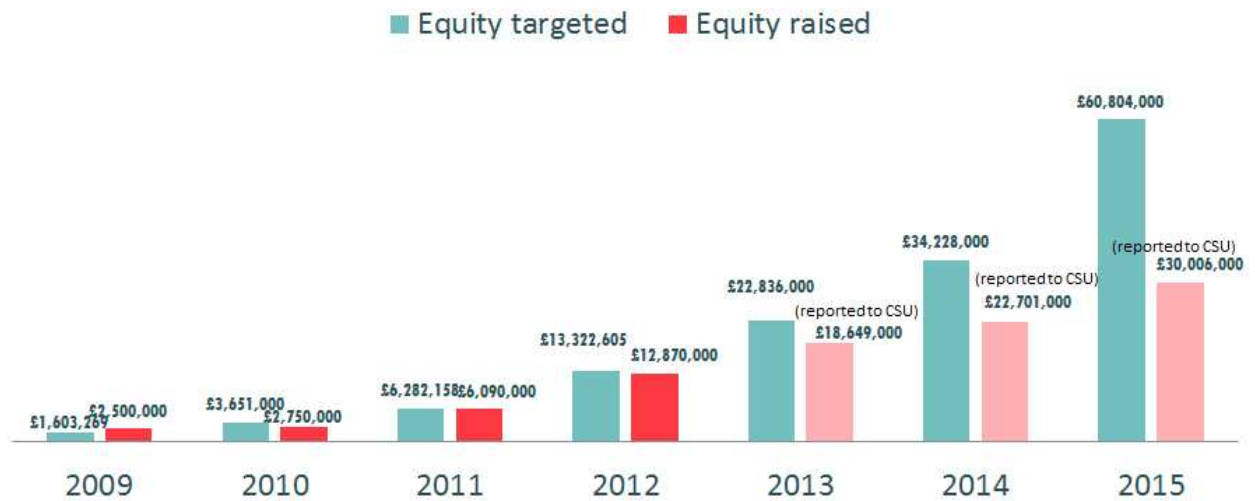
④ 커뮤니티 셰어의 운영 상황은 어떠한가?

- 현재 커뮤니티 셰어는 2004년 6건에서 2015년 20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Source: Community Shares Directory, CSU

- 한편, 커뮤니티 셰어를 통한 펀딩 금액 규모도 매우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250만 파운드(약 39억원)에서 2015년 3,000만 파운드(약 485억원)로 크게 증가
- 두 그래프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2012년 까지는 통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며, 2015까지는 보통 2~3년은 추산이 가능할 뿐 정확한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흐리게 표시 된 것임



Source: Community Shares Directory, CSU
Rounded to nearest £100k

Equity targeted data from offer documents. Equity raised data from Annual Returns (2009–12) and reported to CSU (2013–15)



Penicuik Storehouse
Target = £82,100
Raised = £91,175
Members =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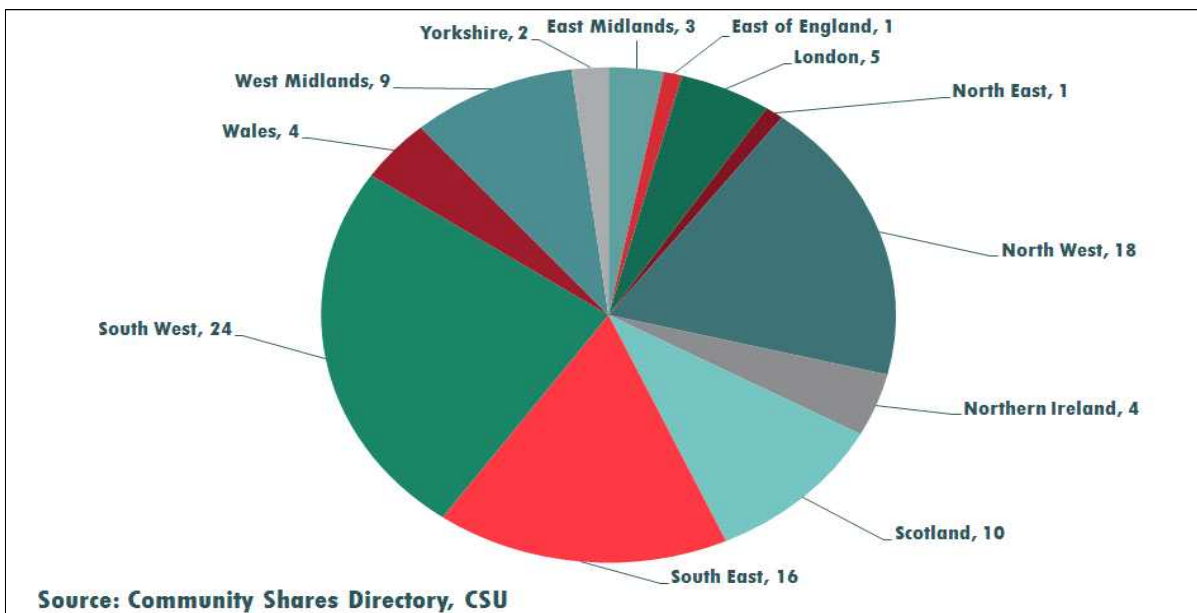


Chase Community Solar
Target = £950,000
Raised = £782,500
Members =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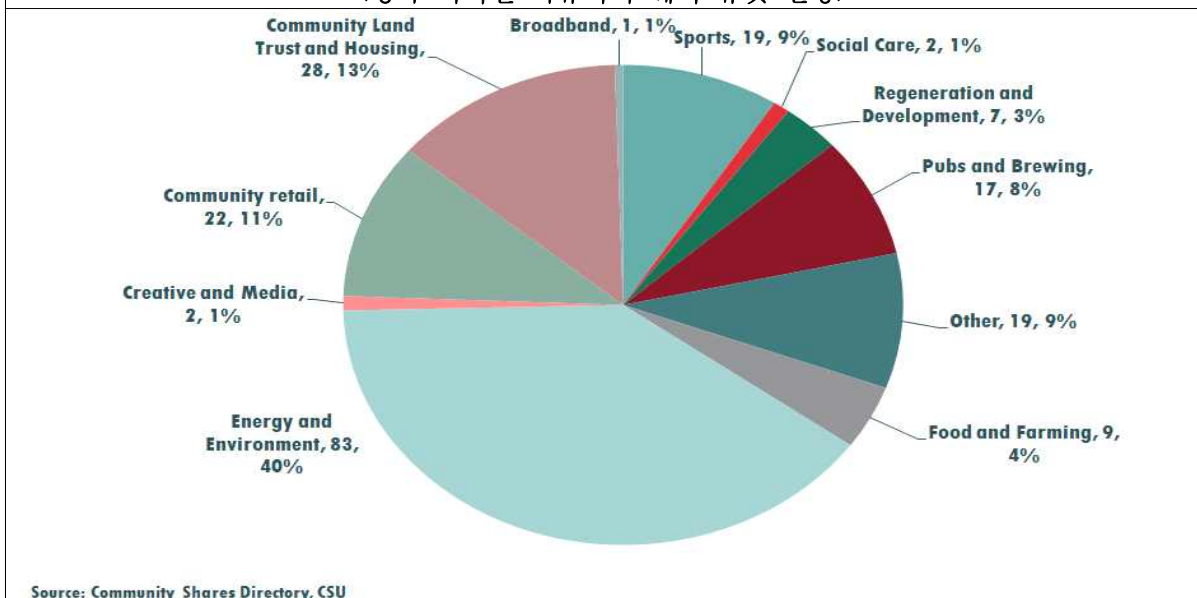


Benenden's Community Shop
Target = £60,000
Raised = £70,380
Members = >300

- 지역적으로는 영국 남서부 24개, 남동부 15개로 남부 지역에 발달해 있으며, 북부에서는 북서 지역이 1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분야별 커뮤니티 셰어 현황은 에너지 및 환경 분야 40%, 커뮤니티 토지신탁 및 하우스 28.1%, 커뮤니티 리테일 22.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반면, 브로드밴드, 소셜케어, 창조 및 미디어, 음식 및 파밍 등의 분야는 1~4% 정도로 매우 미약한 규모를 차지



<영국 지역별 커뮤니티 셰어 유닛 현황>



<분야별 커뮤니티 셰어 유닛 현황>

3. 해크니 협동조합 개발(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1) 개요

□ 설립 배경

- 1970년 낙후 지역인 런던 달스턴구를 회복하기 위해 자치구는 해크니 협동조합 개발에 3층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
 - 달스턴(Dalston) 지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대량의 폭격으로 마을 건물 대부분이 붕괴됨
 - 전쟁의 폐허 속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땅들은 스쿼터(*Squatter: 빈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들 차지가 되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1979년 주거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후 HCD로 발전
 - 구청은 스쿼터가 빠져나간 빈 공간을 소유했지만 쓸 데가 없자 남은 HCD에게 통후추 한 알을 조건으로 100년간 3층 건물을 임대해주었음
 - 이는 통후추 계약이라 불려지는데, 땅을 놀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아래 값싼 조건으로 농사 지을 땅을 빌려줬던 전래의 계약방식임
 - 정부와의 통후추 한 알 계약으로 시작한 HCD는 낙후된 달스턴(Dalston)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들을 시작

□ 기관 역할 및 주요사업

- HCD는 달스턴(Dalston)의 유휴 건물들을 구청으로부터 자산 이전 받거나 싸게 사들여 임대사업을 수행
 - 임대 대상은 사회적 기업, 자선 단체, 문화예술 단체,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기업, 여성 사업가, 장애인 사업가와 같이 사회적 가치 혹은 커뮤니티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세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
 - 이들에게는 시중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해주어 지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 HCD는 지역개발 관련 기관,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수행
 -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범죄의 온상이었던 장소를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 '질레트 광장(Gillett Square)' 사업임
 - 질레트 광장(Gillett Square)은 원래 자동차 주차장이었던 곳으로, 주로 마약거래 장소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런던 동북부의 문화예술의 심지로 불려지고 있음
 - 2003년, HCD와 런던시가 이 공간을 '공공 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롭게 기획하여 커뮤니티 허브공간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임
 - 지역민들이 자신의 물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이 열리거나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지역 축제, 문화행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야외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인터뷰 주요 내용



방문기관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방문시간	15-17시
면담자	Brian Millington	홈페이지	
주 소	62 Beechwood Rd, London E8 3DY	연락처	44 20 7254 4829

① HCD의 설립배경은?

- HCD는 1981년 하우스 코퍼레이티브라는 지역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낙후된 달스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요구되자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게 됨
- HCD는 달스턴 구와 함께 마약거래와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달스턴 지역의 Bradbury Street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 끝에 폐허와 다름 없었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당시 이 건물은 사용하지 않는 폐건물과 다름 없었으며, 달스턴 구는 이 건물의 활용과 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HCD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함
 - HCD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 만큼, HCD는 일반 개발회사와는 다른 임대원칙을 갖고 있는데,
 -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달스턴에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기업, 여성 사업가, 장애인 사업가, 글로벌 기업이 아닌 해크니 사람들이 소유한 기업에 빌려줌



- 통후추 한 알로 사업을 시작한 HCD는 현재 달스턴 지역 내 80여 개의 사무실과 상점, 바(Bar) 또는 클럽, 작업실을 임대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 일부 건물은 구청으로부터 자산이전(Asset Transfer)을 받거나 싸게 사들였고, 임대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매입한 건물도 있음
- HCD의 현재 자산은 650만 파운드에 달할 정도로 성장

- HCD는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로 등록하였는데, 커뮤니티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정체성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 협동조합의 특성상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게 멤버들에 의해서 주식이 나뉘어는 특성이 있음. 초기 주택조합이었을 당시 8~9개의 주체에 의해 돈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을 원하는 정부의 조언에 따라 공동체 이익회사(CIC)로 바꾸게 됨
 - 공동체이익회사(CIC)로 변경한 후에 더욱 더 쉽게 자금 유치를 할 수 있었고 보다 투명한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짐
 - 또한, 커뮤니티 기반의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더욱 더 부각되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HCD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에셋 매니지먼트(Asset Management)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에셋 매니지먼트는 마을만들기 사업체가 정부, 지자체의 자산을 장기간 빌려 커뮤니티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말함

② HCD의 운영 현황은?

- HCD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협동조합 위원들은 300명에 달하며 주요 지역기관 대표, 기업가,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
 - 멤버들을 세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소셜엔터프라이즈, 두 번째는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 협회, 세 번째는 커뮤니티의 개개인의 대표로 나뉨
- HCD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8명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1년에 4번의 모임을 갖고 있음
- HCD의 실무는 10명의 유급 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HCD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데, 1년 매출은 13억원 규모이며, 이중 순수익은 4,000~4,500만원 규모임
- 수익은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광장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지역주민 대상 이벤트를 개최할 때 사용되고 있음

- 주거협동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는 HCD는 협동조합의 원칙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핵심 운영원리로 설정하고 있음

〈HCD 조직 현황〉

- 1982년 설립 Established in 1982
- 300명 이상의 멤버가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이익회사
- 자원봉사 위원회 운영
- 10명의 직원이 근무
- 협동조합 비즈니스 문화
- 이익의 10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
- 매출액 : 650만 파운드
- 순자산 : 430만 파운드

③ HCD의 주요 사업 사례는?

- HCD는 달스틴 지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질레트 스퀘어(Gillett Square) 사례임



- 질레트 스퀘어는 통후추 계약으로 알려진 Bradbury Street workspace 건물 옆에 있는 광장으로 과거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마약거래 장소로 사용되는 범죄의 온상이었던 지역임
- HCD는 2003년 런던시와 함께 추진한 '공공 공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질레트 스퀘어를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킴
- 광장 옆에 달스틴 문화의 집(The Dalston Culture House)에 입주해 있는 볼텍스 재즈클럽에는 저녁마다 문화 공연을 개최함
 - 클럽은 재즈에 관심이 있던 한 택시운전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재즈 공연 공간을 만들면서 시작
 - 유명 뮤지션들이 무료로 연주를 했고 이후에는 정기 연주를 하면서 클럽은 달스틴의 명소로 자리 잡음



④ 기타 사항

- HCD는 현재 4개의 건물을 구청으로부터 리즈 계약을 하였는데, 특혜시비는 없었는가?
 - 4개의 건물 모두 큰 경쟁자가 없었음. 자치구 차원에서 그 건물들은 적자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다른 경쟁자들은 임대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원했지만, HCD는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었음

● HCD 운영에 자원봉사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은 무엇인가?

- 자원봉사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커뮤니티와 관계된 자원봉사자와 일반적이지 않은 봉사자가 있음
- 딱딱하지 않은 접근 방법은 일을 하는 사람이 부모와 친구 등이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오너쉽이라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같이 봉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주간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기업에서 활동하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임

● HCD의 임대료는 어떠한 수준인가?

- 주변 시세의 70~75% 수준임. 그러나 낮게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님. 임대료가 싼 것과 비즈니스의 성장과는 관련이 없음. 임대료가 적다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님. 운영이 잘되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외부에서 도움을 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임대료 책정의 가장 좋은 방법은 70%, 80%, 90%, 100%, 110%까지 임대료 수준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회사와 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Spread I 김정원 박사 인터뷰

① 영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흐름은?

-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노동당이 집권한 97년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별다른 지원은 없었음
 - 물론 97년 이전부터 영국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발달해왔으나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포커싱 되지 못한 이유는 영국의 역사적 흐름 때문임
 - 영국의 경우 2차세계가 끝나고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전쟁으로 인해 시민들의 기초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최초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시기는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 조직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관심은 적었음
 - 80년대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라는 정책기조 하에 적극적인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였는데, 이 시기는 시장 논리에 따른 민간 조직의 참여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관심은 적었음
- 97년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서 협동조합에서 활동하던 주체들을 중심으로 노동당에 적극적인 정책 압력을 행사
 - 영국에는 협동조합당이 있는데 노동당이 정권을 잡자 노동당안에 편입되었는데,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많은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정권을 압박
- 99년 협동조합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고, 토니블레어 총리에게 제안을 하였으나, 협동조합이 갖는 익숙함으로 인해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못함
 - 99년 협동조합 주체들을 중심으로 테스포스팀을 구성하여 채리티 전략 보고서에 발표함
 - 이 제안을 노동당이 채택할 줄 알았으나 토니블레어는 정책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협동조합이 갖는 익숙함으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임

- 이후 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 대신 미국 Social business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소셜엔터프라이즈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을 채택하게 됨
- 처음 노동당 정부의 소셜엔터프라이즈 정책을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시작
 - 초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사업 성과가 나기 시작했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
 - 보수당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청으로 확대 운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와 Public Sector의 예산을 절감
 - 일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내리는 세금을 60% 이상 감면했다고도 함
- 그 결과 지자체에서 기존에 하던 서비스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특히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발생
- 이러한 과정속에서 지역주민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 주목 받기 시작
- 이에 수당 정부는 공공의 사업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포커싱을 강화
 - 그러나, 보수당의 육성의지나 발언은 많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 자금 및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상황
- 이는 영국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쉽게 민영화를 추진하기 어렵고, 정부는 부채 등으로 인해 민영화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은 매우 매력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임
 - 이전에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에 따라 도서관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민간에 시립도서관을 매각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쉽게 민영화할 수 없는 것이 영국의 사회 분위기임

② 영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특성은?

- 현재 보수당 정부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던 노동당 정부와는 달리 선별적 지원 방식인 사회적 투자와 공공서비스 참여를 중심으로 지원하기 시작

〈보수당 정권의 사회적기업 지원 배경에 대한 인터뷰〉

- 영국사회에서는 이제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이런건 믿지 않아요. 그동안 기차, 전기, 상수도 등과 같은 것들이 민영화되면서 민간기업이 운영 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고, 기본적인 서비스 질조차 낮아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 특히 기차가 많이 기여를 했죠. 기차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거나 민영화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높아졌죠.
- 이런 분위기로 인해 정부는 공기업 및 서비스를 팔수도 갖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협동조합이랑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반감도 별로 없고 민간에 넘길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었던 것이죠
- 100%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반기업보다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면 더 낫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 보수당은 이것을 위해 사회적가치법을 제안한 것이죠. 그것도 사실은 제안을 시작한 것은 노동당에서 했는데 노동당은 사회정의를 위해 보다 윤리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었는데 보수당은 민영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한 것이죠
- 실제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진영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 다 팔아야되는데 직접 못하니깐 커뮤니티에 떠넘기는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 먼저 사회적투자의 경우, 현 보수당 정부는 투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도 투자를 유치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사실은 사회적투자도 노동당 정부에서 기획한 것인데, 노동당의 경우에는 투자가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어 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 반면,
 - 보수당 정부는 일부 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매우 축소시켜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사회적 투자 자체도 영국사회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극히 일부인데, 그 일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영국사회에서 사회적투자의 현실에 대한 인터뷰〉

- 영국사회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중에 크게 프로핏을 내는 곳이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투자자를 불러다가 원금도 갚고 투자비용도 낼 수 있는 소셜엔터프라이즈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도 몇 개 없지.
- 그런 기업들이 많아질 십년이나 이십년 후에 올 날을 대비하면서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것이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지예요
-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한다는게 말이 되요? 우리는 씨앗도 안 틔웠는데, 여기도 분명히 사회적 투자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거기서 뛰어난 몇몇 기업들만 해당되는 정책인데, 중간은 위축으로 끌어올리는 밑에서 밑어주는 돈이 싹 없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죠.

- 또한, 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더 이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없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및 공공구매를 입찰 할 때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가산점을 줘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무작정 참여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③ 영국의 사회적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사회적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매우 많음. 사회적 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파이낸스 프로파일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사회적 평가의 결과라는 것이 돈을 지원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럴 경우 지자체나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음
- 특히, SROI도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은데 SROI조차 측정된 결과가 정확한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지만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
- 또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평가지표나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
- 현재 영국 내에서도 많은 지표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관련 주체들이 포럼을 만들어서 표준화된 지표를 만들자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표준화에 대해서는 포괄할 수 있는 지표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고 자동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지표가 너무 복잡해지면 현장에서 쓸 수가 없게 되는 만큼 활용성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현재 영국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띠오리오브체인지라는 툴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가치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 평가방법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씨어리오브체인지라는 방법인데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이 청년의 취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논리의 흐름만 보고서를 작성해서 쓰는 방식임.
-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임
- 예를 들어, 영국의 NPC 뉴 프라잇프로필 캐피탈이라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시민 단체들을 대상으로 기부나 보조금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데,
- 해당 단체들의 투명한 운영 뿐만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사회에 어느 부분에 변화를 주는지 보고서에 담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자체적인 가치평가를 잘하는 곳일수록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사회적가치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인터뷰 내용〉

- 한 젊은 친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양로원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양로원 프로그램을 에어로빅 하는 것을 운동을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체육교육과 전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로빅 강사를 잘 트레이닝 시켜서 자기 졸업했던 친구들이랑 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 그 중에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윤리적인 양로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유치의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에요.
-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회적평가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이 회사가 10명이 안 되는데, 사회적 평가 전문팀이 있어요. 3명인가. 자체에서 만든. 그니까 자기들이 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평가를 해주는지 사회적평가레포트 그런 것들이 색시하게 딱 나오니까. 다른 양로원들과 계약이 잘 되는거지.



IV. 정책적 함의



IV. 정책적 함의

1. 시사점

- 영국은 협동조합에서 시작된 호혜와 협동의 문화가 오랜 기간을 통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지역임
- 이로 인해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이 다른 우리나라에 사례를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 그러나, 정책적 측면에서 풀뿌리 방식을 통해 성공했던 사례라 대부분을 이루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 육성했던 점은 우리나라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 1997년 신노동당 정부는 중앙부처 내에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종합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특히 사회적기업 영역의 규모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 것들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이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 사회적금융, 공공서비스 참여 등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에 일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영국 정부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사회적금융, 공공서비스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 지역주권법 등을 제정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방문기관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도출함
 - ⇒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진지역 지정 제도 도입
 - ⇒ ② 클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커뮤니티주식’ 운용 시스템 구축
 - ⇒ ③ 지역 유희 공유재산 장기임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구축

2. 정책적 제언

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 재정립

- 현재 한국의 시스템은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은 고용노동부인증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타이틀도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에는 각종 지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증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Term을 인증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1) 실제로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회적기업 신청요건이 안되는 개인기업형태나 법인이 아닌 NPO형태인 경우 사회적경제의 틀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소외되고 있어서 이를 포괄할 정책이 필요함.
 - (2) 사회적기업을 지향하여 창업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이 필요하나 이 기간 동안은 성격이 모호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혹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전이나, 혹은 (2)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위하여 적당한 접두어를 붙여서 ‘사회적기업’의 용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예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본인증 전의 기업에 부여하는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전에 사회적기업을 준비중이거나, 혹은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되는 기업들도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임을 알릴 필요가 있음.

② 사회적기업지원 시점과 지원 포커스의 변화

- 현행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일단 기업이 설립되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 후에는 인건비지원 등 각종 운영비가 지원됨
 - 이는 창업은 온전히 창업자의 몫이며,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창업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됨

- 이를 벤처기업등의 지원제도와 비교해 보면, 벤처기업등의 경우는 창업자금부터 지원이 가능함
 - 즉 초기 창업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보조하여 창업자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사업아이디어와 아이템 및 사업계획만 제대로라면 이를 사업체 설립으로 유도하는 제도이지만, 사회적기업지원의 경우는 창업후 인증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벤처기업처럼 창업인큐베이팅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등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창업 후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자금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것은 창업시 이므로 지원시점을 창업시부터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포커스도 사회적기업이 연명하도록 지원하는 개념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함

③ 개인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 현행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이 불가능함
 - 이는 사회적기업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에서 소유주 개인의 독단적 경영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며 필요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적기업의 이상을 추구하며 그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음
- 또한 기업 설립시에 개인사업체와 달리 법인 설립은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며 제약조건도 만만치 않음
- 일단 개인기업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업종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은 불합리함
- 이런 이유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약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인증시에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시는 일단 개인사업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의가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고, 일정 기간(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3개월 전까지)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해주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되는 것이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음

④ 「사회적경제촉진지역」 지정 제도 도입

□ 정책 여건

- ①개별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기업 지원, 협동조합 지원 등 개별 주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건(성장단계 등)을 고려해 생태계가 지역에 배태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 ②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거버넌스 구축 필요
 - 지역 내에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자원들이 식별·발굴·공유·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
- ③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있어 통합적 지원체계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화 모색
 - 인력양성, 자금지원, 창업지원, 연구개발, 비즈니스서비스 지원 등이 생태계 내에 통합되어 취약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최적의 사업환경 조성
 - 취약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위해 안정된 내부시장을 창출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네트워크 구축·강화

□ 도입 방안

- ①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촉진지역’을 도입하되,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경제촉진지역’을 관련 조항을 신설(지구지정 운영, 지구별 종합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원내역 등)

〈영국 사회적기업 지구(Social Enterprise Zone)〉

- 블랙풀 사회적기업지구의 경우, 사회적경제 솔루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에 자치구 차원에서 지정·운영하는 비공식 형태의 지구
- 해당 지구에서는 사회적기업센터 운영, 아카데미, 운영지원, 보조금·대출, 컨소시엄 비딩, 프랜차이징, 사회적 회계, 사회적기업 마크 등 지원
- 지구 내에서는 의회, 금융기관, 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대

● ②대상지 선정은 신청요건 충족 외에, 대상지 선정평가에 근거해 선정

- 지구의 공간적 범위 : 소생활권 규모인 자치구 2~3개 동 단위(인구 약 10만)로 하되, 근린생활권(도보가능권역인 반경 400m~800m)을 최소단위로 설정
- 대상지 신청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신청요건 충족한 지구에 한해 신청절차 이행)

〈사회적경제 활성화특구 대상지 기본요건〉

-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기업, 단체 등)가 상대적으로 집적된 지역
-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한 잠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시·군의 사회적경제 육성 의지나 지역주민의 요구가 높은 지역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 | | |
|-----------|----------------------------------|
| 1.대상지 적합성 | 2.사업추진의지(구청장의 사업의지, 협의체 구성·운영 등) |
| 3.지역사회역량 | 4.지역에 대한 기여도(일자리창출, 공공서비스 만족도 등) |

● ③사업추진체계는 대상지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00지구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00지구 사회적경제 사업단’을 해당 지구에 설치

- 사업단 산하에 사회적경제 주체 및 지원기관, 지역시민단체 등 10인 내의 ‘00지구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며, 신청서 작성·종합계획 수립 적극 참여
- ‘사업단’은 시군 공무원, 위원회 구성원, 관련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회적경제진흥 종합계획 수립, 사업시행, 위원회 운영·지원 등 역할 수행

- 지구별 사업비(약 5억원 이내)를 사전에 편성·운영하며, 그 재원은 충청남도, 시·군의 예산으로 조달

● ④지구제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구별로 ‘00지구 사회적경제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시행

- 계획은 I.계획 개요, II.계획의 주요 여건, III.기본구상, IV.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V.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계획으로 구성

- ‘IV의 추진계획’은 i)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ii)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iii)지역밀착형 금융시스템 구축, iv)인재양성사업, v)연구·조사사업, vi)지역특화사업 발굴 등으로 상세화

☞ 지역특화사업: 공공유�휴자산 공동체 신탁결성, 건강매점 협동조합, 의료복지협동조합 등 지역의 소요 및 특성에 따라 발굴

⑤ 클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커뮤니티주식’ 운용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초기 및 창업 이후의 우수 사업화 아이টে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펀딩 시스템 구축·운영

- 기존의 벤처캐피털과 정부의 정책자금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탈피, (예비)창업자에게 일 반인 및 대기업의 펀딩 자금을 연결
-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초창기 사회적경제조직들 의 안정적인 사업정착 유도

<클라우드 펀딩시스템 예>

- * Amanda Palmer(음악분야) 사례 : 싱어송라이터인 Amanda Palmer가 직접 제안한 음 반 제작, 아트북 제작, 투어를 위한 자금 모금 프로젝트로서 2만 4,883명의 후원자를 통해 119만 2,793달러모금(목표 모금액 1,192% 초과 달성)
- * Torment(게임분야) 사례 : 미국의 비디오 게임 개발업체 inXile entertainment가 제안 한 ‘Planescape : Torment’의 후속 게임 제작 프로젝트로서 7만 4,405명의 후원자 를 통해 418만 8,927달러를 모금(목표 모금액 465% 초과 달성)

● 충남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운영

- 사업화 아이템 제안자의 내용(모금액, 기한, 보상방법)에 대해 일반인 및 유관기관 등이 평가 후 후원
-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투자 지원 기업, 일반인 지원
- 추진방식은 충청남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간 협력체계 구축
 - (충청남도) 클라우드 시스템 제도개선 및 지원
 - * 펀드조성을 위한 애로사항 파악, 중앙정부 건의 등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반인, 대기업, 유관기관의 펀딩 관리 및 우수 아이디어 펀딩 기획
 - * 사회적경제조직의 아이디어 모집·선정, 펀드관리, 홍보, 확산 등의 기능 수행
 -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 구축·운영
 - * 펀드조성, 사업홍보, 우수 기업 발굴 등

⑥ 충남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신탁관리 시범사업 운영

- 선도적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공유자산의 신탁관리·운영 사업 실시
 - 충남도 소유 공유자산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당 자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노력 강구 필요
 - 이에,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자산을 신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
 - ⇒ 현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 고려
- 신탁 관리·운영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 모색
- 충남도 소유의 자산을 대상으로 한 신탁 관리·운영 사업 추진
 - 지역사회 개발형 사회적경제기업이 충남도 소유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임대·대부 등에 대한 조건을 완화
 - 현행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에 한정해 처분이 가능한데 일반재산의 처분은 입찰문제, 영구시설 축조문제 등 활용이 어려움

-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
-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충남도 소유 자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창출 지원 추진

● ②유희공간 신탁제 활성화를 통한 신탁 관리·운영 다양화

- 건물주가 유희공간(건물, 주택,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신탁할 경우, 세금감면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마련
- 신탁화된 유희공간은 개발신탁형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토지를 장기신탁함으로써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영국의 사회적기업 민와일 스페이스(Meanwhile Space)는 관할지역의 빈공간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에게 공간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

● ③신탁 관리·운영 활성화를 위한 융자 및 금융지원 확충

- 사회투자 기금 조성: 현재 충남도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서울시에서는 사회투자기금에서 운용하는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을 신탁 관리에 연계하여 신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사례〉

○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개요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대주택 공급(예정)자
 - 서울 소재 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 공공성이 담보되는 市·공공의 사업수행자의 경우 융자 신청 가능
- 사업유형 : 건설사업 / 임대사업
- 융자 한도 : 총사업비의 70% 이내(최대 2,500백만원/사업)
- 상환방식 : 최대 2년(건설), 최대 5년(임대)
- 융자금리 : 연 2%

- 충남신용보증재단 기금 활용: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탁 관리·운영 기업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최고 100억원 이내)

⑦ 충남 사회적성과(Social Impact) 측정 및 인센티브제 운영

□ 사업 개요

-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조모
- ①사회적경제조직별 유형화를 통한 사회적성과 측정 Tool 개발
 - 충남형 사회적가치 평가 기준과 운영체계 구축
 -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공통성과지표와 부문별 성과지표 발굴
 - 성과지표 개발 시 사전적으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운영
- ②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사회적성과 우수기업 발굴
 - 상기 개발된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를 통해 시범운영 형태로 사회적성과 우수기업을 발굴
 -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패, 포상금, 홍보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사회적성과 우수기업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과 성공사례집 발간

□ 기대효과

- 정부재정지원 절차 품질 향상을 통한 사회적기업 경영 개선
- 개별 기업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 실천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 사회적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인식 확산과 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상생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⑧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자 연계 협력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연계의 필요성

- 지역사회로부터의 자원동원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지역사회는 유기적 관계로 바라보며, 1차적으로 내발적 발전에 우선하여 시민사회 조직과 연계는 필수적 요인임
 -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서 자원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음
- 시민과 관계를 통한 자원동원 사회적 기업은 시민이 사회적 기업의 공동생산자로 참여가 필요
 - 시민이 서비스 생산에 소비자로서 생산자로 참여하면서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음
 - 자원봉사 조직은 고객으로서, 혹은 공동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있음
- 마을 공동체가 힘을 모아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 하는 과정에 물적자원도 필요하지만 윤리적, 신뢰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의 결합은 매우 중요
- 사회적 기업의 경영지원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경영 및 경쟁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재능(경영노하우,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와 단순활동이지만 종사원들의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협력해줄 수 있는 일반 자원봉사자의 관심도 매우 중요
 - 이밖에도 일반 자원봉사자는 사회적 기업의 물건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매체의 역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사업화 방안

- ①충남사회적경제와 지역자원봉사센터 공동협력사업 추진
 - 자원봉사 인력교류 사업 추진 : 충남도자원봉사센터와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원봉사 인력들을 순환·공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자원봉사자 대상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 ②사회적경제 자원봉사 통합플랫폼 구축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매칭 시스템을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연계 사례〉

- 과천시의 벽화봉사단이 리폼샵(예비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10여년간 운영해 온 벽화그리는 봉사단은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버려지는 폐가구를 수집하여 리폼한 후 판매하여 저소득 가정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에서 자원의 재사용 운동을 통해 환경문제에도 접근하여 청소년 및 아동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가정의 가구를 봉사자들과 함께 리폼해서 전달하는 활동에도 참여 하고 있다.
- 남양주 부녀회는 농산물로 장아치와 저장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 하고 있으며, 아낙네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 과천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지역 특성인 버려지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후원하거나 판매하는 마을기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일반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⑨ 지역 내 소규모 마켓의 협동조합화 방안 검토

-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개척 이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장터, 슈퍼마켓 등과의 연계가 중요
- 또한, 대기업 대형마켓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마켓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도 새로운 혁신적 방안 모색이 필요
- ①충남도 내 소규모 슈퍼마켓 협동조합화 사업 추진
 - 소규모 슈퍼마켓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 현재 충청도 내에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 실태조사를 통해 협동조합화 가능성 탐색
 - 슈퍼마켓 협동조합화 공모사업 실시 : 공모사업을 통해 소규모 슈퍼마켓의 협동조합화를 유도하며, 이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

● ②협동조합 슈퍼마켓과 사회적경제조직 가치사슬 연계사업 추진

- 상품거래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식료품을 사회적경제조직의 로컬푸드, 가공품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호 상품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 내부거래 협의체 구성 : 협동조합 슈퍼마켓 주체들과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상시 교류할 수 있는 협의 채널 구축

● ③협동조합 슈퍼마켓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 충남도 차원에서 협동조합 슈퍼마켓의 통합 물류시스템 운영을 위한 적극적 지원 추진